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에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 넘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 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1월 14일 (토) 제 155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감사절 특집 : 발행인 칼럼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얼마 전 아내가 돋보기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서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찾다가 못 찾은 채 강의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학교로 달려갔다. 나에게 혹 자기의 돋보기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자세히 둘러보니 세면대 구석에 돋보기안경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수없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못 찾은 것은 돋보기안경을 잃어버렸으니 안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한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말씀의 돋보기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아야 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만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무한한 축복을 주시어 그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 자기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 서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부와 행복과 평안을 자기의 힘과 지레로 얻어 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다니엘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모든 것이 없을 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였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권면하고 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의 어려운 환경을 타गत기 전에 먼저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깊은 감사를 드리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편 50편 14, 15절).

감사의 축배를 올리자



최선호 목사 (시인)

주여 지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실과는 등글게 등글게 주렁주렁 늘어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서
영광 영광 주님의 영광을 찬양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데워지고
눈 감고 있으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우러르면 영원까지 보이는 감사
아- 이대로 몇 천 시간 몇 만 시간 다가 오는가

나를 가슴에 품고 계실 그리스도
빈 잔만 들고 섰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성령 그때 그 포도즙을 가득 부으소서
새로 태어나는 기쁨으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감사의 축배를 올리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난민 위기로 유령은 현재 우항!	 3면 감사절 설교 김영수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감사의 기도" 가 부활되어야한다!
---	---	--	--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6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 인자로 개혁신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6년 5월 13(금) - 16(일)
2) 고시 장소: Philadelphia, USA
-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말라기 4:1-6
(2) 신약 주해 - 고린도전서 2:1-5
(3) 논문 제목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4) 설교 본문 - 신약: 로마서 1:18-32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필기고사 당일엔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설기교사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① Letter Size(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며,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 이내).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 주를 사용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 할 것.
3) 면접 고시
-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6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증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00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6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0회 총회기간(5월17일-20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3일-16일 총회고시장소)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Rev. Yun Joon Hur) / Email: jameshur63@hotmail.com
NY Cell: (718)637-1470
-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김태업목사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시론

깜깜한 세상에 너만큼만 되어도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남주에 산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올해 여름이 가장 더웠던 것 같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전은 다 타버렸는데 습도조차 높아 짜증을 내게 만들었다. 우리 교회당은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무리 에어컨을 풀가동해도 9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의 10월 말까지 쭉어지는 듯 하다가도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올라가는 온도 탓에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까지 했다. 그러던 더위가 한순간에 물러가 버리고 다시 전형적인 남가주의 신선한 날씨를 회복하였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날씨로 인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든다.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추워져버린 날씨에 감사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우리 교회의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니 미국 동부의 추운 날씨 속에 감사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절이기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절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아직 모든 상황은 불확실하고, 아직 힘든 일들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어야 한다. 아직도 살아 있음이 감사하고, 가족이 남아 있음이 감사하고, 빈약한 건강이라도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내게 있는 '작은'-실상은 이것들은 엄청 큰 것들이다- 감사거리들의 편린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끝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감사거리들을 생각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큰'-실상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 수 있다- 욕심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다.

10년 전 이맘 때 세상을 떠난 전생수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 자신은 자기를 향해 반쪽목사라고도 하고 만득이라고도 하며 세상을 그를 향해 무소유를 실천한 목사라 한다. 20년 동안 농촌 목회자로 살다가 5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가 남긴 유서가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흥흥하기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노라. 이에 남은 이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노니, 첫째, 나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인즉 병원에 입원하기를 권하지 말라. 둘째, 나는 병에 걸려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떤 음식이든 먹지 않을 것인 즉 억지로 권하지 말라. 또한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꺼려하지 말라. 셋째, 내가 죽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 장례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넷째, 내가 죽으면 내 몸의 쓸모 있는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내가 집례 할 때 입던 옷을 입혀 화장을 하고, 헌행법에 여긔까지 남아있지 않으면 고향 마을에 뿌려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내가 죽은 뒤에는 나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땅 위에 남기지 말라. 와서 산만큼 신세를 졌는데 더 무슨 폐를 끼칠 까닭이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를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노라.”

전 목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7명의 사람들에게 기증하였고, 번거롭게 사람을 부르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해 자신이 사모한 주님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한 평소의 뜻대로 몇몇 지인이 참석할 가운데 소박하게 장례예배를 마쳤고 화장되었다.

<4면으로 계속>

삶의 마지막, '녹색 죽음' 으로 마감한다!

허핑턴포스트, 미국내 유행, 대세로 자리 잡는 친환경적 죽음 현황 보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마지막을 맞이할까? '녹색 죽음'이 대세다.

현재 미국에서는 죽을 때마저도 환경 친화적으로 죽자는 운동이 장례업계에서 뿌리를 내려, 기준을 설정하는 녹색매장위원회라는 곳이 생겼을 정도다. 이곳에서는 유골 단지와 관 등 매장 사용하는 물품들을 인증하고, 장례식장과 공동묘지 같은 곳들의 환경에 유독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탄소 공해를 유발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증을 발행한다. 매장 시설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평가한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인생의 마지막마저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는 '녹색 죽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How To Die Green).

2015년 1월, 녹색매장위원회가 미국의 공동묘지 7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녹색 매장 옵션을 추가하자 녹색 매장 수요는 72.4% 증가했다. 위원회의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도 최근 18개월 동안 3배 증가했다고 케이트 캘러닉 위원회장이 밝혔다.

그렇지만 죽음은 탄소 발자국을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 아닐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관과 시멘트 지하 납골당 등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매장 방법으로는 우리는 사후에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탄소 오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매장 방식 대신 자연적인 매장 기술을 사용하는 게 평균적인 미국 운전자 한 명이 4개월 동안 운전하지 않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녹색매장위원회의 제품 규정 고문 새뮤얼 바는 말한다.

녹색매장위원회는 천연 소재 제품 판매사에 '나뭇잎' 1개부터 3개까지 점수를 매겨 녹색 죽음을 선택하기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독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도색이나 접착제

를 사용했는지,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3천마일 이상 이동을 하는 지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다. 위원회는 같은 체계로 장례식장을 인증한다. 녹색매장위원회 인증 장례식장은 최소한 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함과 시체 보존을 위한 '사후용 액체'(포름알데히드와 발암물질이 들지 않은 것)를 써야 하며, 가격표에 모든 '녹색'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높은 평점인 나뭇잎 3개를 받으려면 시체의 방부처리의 대안으로, 외과적 방법이 아닌 냉동이나 드라이아이스 시체 보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방부 처리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 물질을 사용해 시체의 부패를 더디게 만드는 것으로,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등의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침출물 지하수에 섞

일 수도 있다. 장례식 소비자 연합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만 530만 개의 방부 액체가 시체와 함께 땅에 묻힌다. 미 환경보호국은 포름알데히드를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폐기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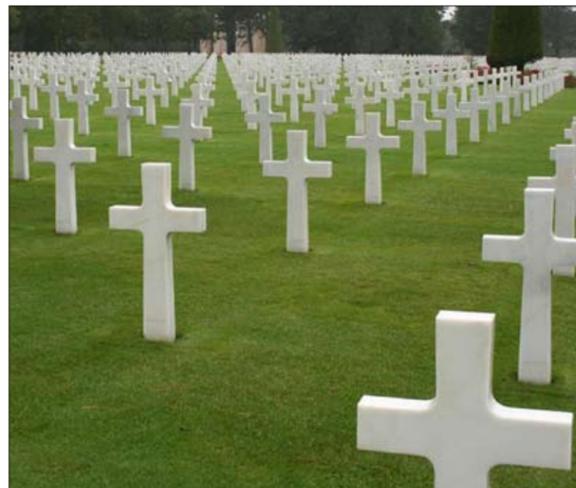
관의 소재 역시 우려 대상이다. 서리를 없이 그냥 잠들도록 묻으면 되지 않나? 미국의 상당 지역에서는 그래도 되지만, 10개 주-앨라배마,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시건,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욕-에서는 유가족들이 허가 받은 장의사의 서비스를

를 75%나 줄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격이 2,395달러에서 4천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 방법은 9개 주에서만 합법이다. 최후의 안식처를 고를 때 녹색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장례업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에는 12만 곳이 넘는 공동묘지가 있지만, 이중 콘크리트 납골당을 쓰지 않는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곳은 80곳 정도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업계는 오랫동안 큰 변화에 저항해왔다. 심지어 소비자 수요에 따른 변화조차 거부했다.

추적 저널리스트 제시카 미트포드가 1963년에 쓴 책 '미국식 죽음'에서, 저자는 장례업계를 상세하게 취재하고, 방부처리가 공공보건에 좋다는 장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파헤친다.

전통적인 장례식장들은 방부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는 걸 더 명확하게 알려려는 시도들과 싸워왔다. 1984년, 연방 통상위원회가 장례식장에 방부 처리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명시하라는 새 규칙을 도입했을 때 장례 업계는 반발했다. 2008년에 통상위원회가 항복 별 비용 명시 청구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통적 장례업계는 이미 화장의 인기가 높아져 매출이 줄었다. 지



녹색매장위원회, 유골 단지 관 등 환경유독물질 사용여부 따라 인증 발행 매장시설 자연 경관 보존 노력 평가...소비자들 아직 비용과 정서 동일시

를 사용했는지,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3천마일 이상 이동을 하는 지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다.

위원회는 같은 체계로 장례식장을 인증한다. 녹색매장위원회 인증 장례식장은 최소한 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함과 시체 보존을 위한 '사후용 액체'(포름알데히드와 발암물질이 들지 않은 것)를 써야 하며, 가격표에 모든 '녹색'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높은 평점인 나뭇잎 3개를 받으려면 시체의 방부처리의 대안으로, 외과적 방법이 아닌 냉동이나 드라이아이스 시체 보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방부 처리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 물질을 사용해 시체의 부패를 더디게 만드는 것으로,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등의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침출물 지하수에 섞

발도록 범으로 정하고 있다. 장례식 소비자 연합과 대중들에게 가장 장례식을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인 '전국가정장장례식연합'은 민간 업체의 서비스 구매를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법을 폐지하라고 국회 위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더 환경 친화적인 DIY 장례식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적었다. '선택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미국적인 발상이다-개인, 가족, 가구들이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슬프고 기쁜 임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장의사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법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에서는 추도식조차 허가 받은 장의사가 감독해야 한다. 전국가정장례식연합은 헌행법에 저항하려고 소비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다른 대안은 최근 몇 년간 인기가 늘고 있는 화장이다. 2007년에는 35%가 화장됐지만, 이제 미국의 사망자 절반 이상은 화장된다(그러나 화장비율이 75%에 이르는 영국에 비하면 아직 낮다).

표준적인 화장에 드는 가격은 약 500달러 정도에서 시작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장례 방법이지만, 화장 시에 발생하는 탄소 때문에 녹색 매장만큼 환경 친화적이지는 않다. 가디안의 추정치에 의하면 화장 중 방출되는 탄소는 평균적인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며 사용하는 에너지에 의한 방출량과 비슷하다.

화장의 대안도 있다. 뼈를 제외한 인체 전부를 녹이는 알칼리 가수분해라는 화학 처리 방법도 있다. 묻거나 뿌릴 수 있는 재 같은 흰 가루가 남는다. 이 방법의 지지자들은 화장이 남기는 탄소 발자국

를 줄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슬로컴은 결국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한다.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 금속이나 자연분해 되지 않는 재질의 관을 쓰지 않고, 콘크리트 납골당을 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들을 직접 매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골에서 조용하고 좋은 곳을 찾아서, 이런 불필요하다는 액세

금은 녹색 매장 운동 때문에 더욱 추락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전국장의사협회는 이 운동에서 수익을 얻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제 독자적인 녹색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마케팅하고 있다.

(장례 업계는) 화장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제 전통적인 매장을 소비자들에게 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녹색 매장을 이윤을 지키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슬로컴의 말이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포름알데히드를 쓰지 않는 방부처리 용액 광고 같은 '녹색 섹터'를 소비자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부처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녹색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상업적 기업이 이용하거든 아주 쉽다. 마케팅 하는 녹색 장례 절차는 전통적 절차와 같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슬로컴은 소비자들에게 항목별 가격표를 요구하라고 조언한다.

다른 여러 환경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싼 가격에는 사회 정의라는 측면도 있다.

"공동묘지 장례식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최고 2만 달러까지-사람들은 바이블 벨트로 불리는 남부 주들의 가난하고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전국가정장례식연합 회장이자 녹색매장위원회의 교육 총괄 담당 리 웨스턴의 말이다.

장례식소비자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죽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했을 때, 미국에는 장례식장이 필요한 수보다 9,882곳 더 많다. 이런 상황이 '각각 어부짐에 이상적'이라고 한다. (6면으로 계속)

담임 목사님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는 2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PCUSA 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M.Div) 졸업 하신분
2.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분
3. 목사 안수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부목사 경력 포함)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한국어, 영어)
5.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한국어, 영어 각 1부)
2. 목회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3. 설교 2편 (최근 6개월 이내 CD, 동영상, website 주소 제출)
4.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5. 추천서 2인(목사님) 반드시 자필 서명
6. 사약교회 주보 (최근 1개월분)
7. Personal Information Form (Download from : <http://www.pcusa.org/resi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서류 마감

1. 제 출 기 한 : 2016년 1월 31일
2. 서류보낼곳 : (우편접수) 29900 Brighton Court Delmar, MD 21875 : IL BAE KIM
3. 문의 : 청빙위원장 : 김일배 장로 (전화 : 410-422-9266), 청빙위원 : 김금화 장로 (전화 : 410-430-9288) Email: geumh119@hotmail.com
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www.skoreanchurch.org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감사절 설교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안에서 형제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페르시아에 '사니아'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다. 그는 평소 불평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꼭 한 번 불평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 다녀야만 했을 때였다. 그는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살아서 내게 신발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것일까?'하고 불평하면서 걷고 있는데, 다리 한쪽이 없는 불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불구자를 보는 순간, 그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렇게 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한다면, 나는 비록 신발을 신지 못했지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감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 중 성전에 안락케를 안치하면서 너무 감사하여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을 드려 제사하고 준비된 찬양대가 감사 찬양을 할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민자들의 생활은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돌아보면 주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 하지 말고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크게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 절기가 되어야 하겠다.

시편 105편 1-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라"고 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한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 할지어다"라고 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의 방법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기쁨 때나 슬픔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넉넉할 때 그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

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크게 감사했듯이 한 해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눈에 보이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라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거나, 혹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구해 주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잘못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가 막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른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저미어 오는 감동을 느낀다.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 나 남에게 있는 건 강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 공평하신 하나님이니 / 나 남이 가진 것 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은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나 또한 땅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행9:4)고 물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놀랍다.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의 제자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그 몸이 땅에 교회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다면 결코 핍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여야 한다. 시편 122편 6-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니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니라 라고 약속하신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예루살렘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는 말은 곧 성전에는 평강과 형통이 있다는 말씀이다.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다. 그러자 감사가가 넘쳐흘렀다.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 것이다.

이웃을 주심에 감사하라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고 있다. 또 "너희가 기록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롬16:16)고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다.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가 많음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좋은 친구가 있음도 큰 축복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형제가 있어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음도 큰 축복이다.

감사하는 삶 (대하 5:11~14)



김영수 목사 (브라질사랑의교회, KAPO 총회장)

한 점을 용서해 주었거나, 무엇이든 나에게 유익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존재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 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름으로"라는 말을 "이름 때문에"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한 신분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 끝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산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돈도 명예도 외모도 재능도 애인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실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간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인생의 보장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 중에 송명희 여사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 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일급 장애인이다. 그는

없지만 / 공평하신 하나님이니 /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만히 음미를 해보라.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가?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를 못 가진 자매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다. 그러자 감사가가 넘쳐흘렀다.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 것이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라

누구나 초신자 때는 교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내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 듣게 되고, 교회의 예식에 참예하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 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일급 장애인이다. 그는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초대합니다.

기아대책 해외아동결연 후원사역은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을 지어주고 박수를 받는 위대한 선교사역이 아닙니다. 빛이 닿지 않는 세상 후미진 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잃어버린 한 생명에게 다가가서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포근히 안아주고 복음의 씨를 틔우며 가꾸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랑과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온 아들이 자라서 훗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큰 재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역에 동역해 오신 후원자 가족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느 선교사역자들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말없이 꾸준히 함께 사역해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보내며 여러 후원자 가족 분들과 이 사역에 관심 있는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여 사역의 열매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의 정성이 담긴 작은 만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의 사역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5년 11월 29일(주일) 오후 6시
- 장 소: 뉴욕초대교회(이사장 김승희목사 사무) 210-10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NY 11364
- 문 의: 646-270-9771, 914-393-1450
- Email: breadgospel@gmail.com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 김영환 목사 준비위원장 박진하 목사

부모가 결혼한 가정의 안정이 어린이에 힘준다!

월스트리트 저널, 흑인 불평등 해결책 연구결과 보도

“미국 흑인들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막는 여러 장애 중에서도 가정환경의 차이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공공 정책으로 다룰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들어 발표된 연구의 핵심이다. 그중 상당 부분은 2015년 가을 학술지 ‘어린이의 미래’에 실렸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흑인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불평등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형성 및 정서함양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도해주고 있다(The Poverty Cure: Get Married: Black children bear the brunt of single parenthood's harms).

1960년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보였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결혼에서 나타나는 인종 간 차이는 완만한 수준이었다. 당시 백인 여성 95%와 흑인 여성 92%가 적어도 한 번 결혼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큰 격차가 나타났다. 40-44세의 백인 여성 중 88%가 결혼한 상태거나 한 적이 있었으며, 같은 연령대의 흑인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63%뿐이었다.

교육이 차이를 만든다.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흑인 여성 중



가 있는 경우 결석과 정학 측면에서 남녀 학생 사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남아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삶에서 아빠가 부재한 경우 더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머니들을 돕고 동네 및 학교를 개선시키는 공공 정책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증거가 기반 한 형사사법 개혁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종교 및 비종교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남아아이들의 삶 속에 꾸준히 성인 남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어린이의 미래’ 연구의 저자들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리바는 결혼이 아이의 행복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결혼 자체를 지원하는 것 외의 정책 개입을 통해서만 모방하

흑인아기 71% 미혼모 출생, 백인 29% · 18세까지 백인아이 70%는 생물학적 부모와 사나 흑인은 33% 불안한 가정은 여아보다 남아에 큰 타격, 남아 문제는 인지보다 행동... 아빠 부재 더 힘들어 해

한 번이라도 결혼을 한 여성들의 비율은 71%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흑인 여성들의 경우 56% 뿐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인종은 중요하다. 대학 교육을 받은 흑인 여성들이 한 번이라도 결혼을 한 비율은 백인 여성들보다 17%포인트 낮았다. 한편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 중에서 흑인/백인 사이의 격차는 31%포인트로 엄청났다.

그 결과 다른 차이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흑인 아기 중 71%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나며 백인 아기의 경우 그 비율이 29%라는 점을 생각해 보라. 수많은 흑인들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흑인 어린이의 66%는 결혼한 부모와 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은 생물학적 부모가 계속 함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다. 신생아부터 18세까지의 백인 어린이 10명 중 약 7명은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흑인 어린이의 경우 3분의1만이 생물학적 부모와 산다.

이는 중요하다. 가족구조를 연구하는 사라 맥라나한과 이자벨 소홀이 ‘어린이의 미래’에서 지적했듯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두 명의 생물학적 부모가 키우는 어린이들이 다른 가족 형태에서 자라는 어린이들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거는 결혼을 대체할 수 없다. 동거 커플들은 평균적으로 18개월 동안만 같이 산다.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3명 중 2명은 12살 때쯤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가 헤어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결혼 가정의 어린이들은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일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불안한 가정은 어린이들이 낮은 성과를 내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불안한 가정은 여자아이보다 남아아이에게 눈에 띄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악의 영향을 받는 것은 흑인 남아아이들이다. 새로 발표된 한 획기적 연구에서 MIT의 데이비드 오테와 노스웨스턴 대학의 데이비드 피글리오가 이끄는 연구팀은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난 남아아이들은 자신의 여자 형제들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걸쳐 무단 결석 및 행동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도 더 낮고, 청소년 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남아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의 격차 중 상당수는 백인보다 흑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차이들이 스트레스, 영양 부족 같은 요인들에

대한 태아가 민감도가 더 높거나 위험한 동네와 형편없는 학교가 전적으로 원인이라는 가설들을 조사하고 반박한다. 남아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의 큰 격차에 기여하는 가정환경의 독립적 효과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동네와 학교가 “가족 구조 자체의 직접적 효과”보다 덜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왜 그럴까? 연구진은 남아아이의 문제들은 인지보다 행동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무단결석과 교실 내 혼란은 정학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남아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사이의 고졸자 수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정에 아버지

(2면에서 계속)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시(제목: 반딧불)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캄캄하다고 하는구나! /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 너만큼만 되어도 좋겠구나! / 어두운 밤 풀숲에서 깜박이는 너만큼만 되어도...” 반딧불은 정말 작은 불이다. 그 존재가 희미하기까지 하다. 밝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그런 반딧불을 모아 놓고는 글을 읽었다 하지 않는가. 오늘 기독교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이런 반딧불마저 없는 현실

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결혼 촉진 노력을 평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 연구가 맞다면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간에 안정적인 대 전한 가족의 영향력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흑인을 위한 진정으로 평등한 기회를 위해서는 흑인 소득, 지역, 학교, 고용 기회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때문이다.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자조론이 대세다. 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없을 까마는 세상은 빛나는 교회보다는 어두운 교회를 먼저 보기 때문에 세상은 육천지가 되었다. 이런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목사들부터, 개 교회부터 무소유를 지향하고 각기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함으로 반딧불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주시지 않은 ‘큰’ 것에 애를 풀이기보다는 이미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의 참 뜻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29편 아이와 같은 생각의 껍질을 벗고 성숙하라

시편 1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나의 소사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시129:2). 사람이 볼 때 좋은 것, 또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시는 전능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흥해를 만나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닐진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둔한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아, 우리는 이곳에서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구나’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거나 괴롭히시려고 이끌고 나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계획 그대로 추진하시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나고 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아버지, 이러한 환난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심한 때에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바람 때문에 항해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 돛을 올리면 오히려 그 바람이 돛을 밀어 엄청나게 쉽게 가게 됩니다. 반대로 바람 부는 환경에서 돛을 올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노를 저어가려한다면 무척 힘이 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 하도록 믿음의 돛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애를 책임지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이곳까지 온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도 인생을 사는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시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큰 복이 되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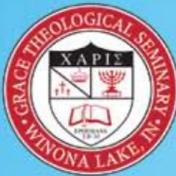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천국까지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함은 그것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겹치는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17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았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여, 이 어두운 밤중에도 내 생각만은 빛이 나게 해주소서’라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면 바로 그 헤아리는 순간에 엄청난 것을 즉시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말씀에는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여, 어린이와 같은 생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소서 모든 사람의 눈에는 불평만 보이지만, 내 눈에는 불평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보석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복되게 해 주소서, 문제 가운데서도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인생의 나그네길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 기독교적인 경향들이 거세어지면 서, 인터넷에 추수감사절에 대해 극단적이고 반감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소설가가 추수감사절에 대해 낸 작품이 역사가 되고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변질되고 왜곡되어지는 현상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 기독교의 몇 분 목사님들께서 추수감사절의 폐지를 주장하는 책과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선교 초기에는 대부분이 농경사회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추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추수감사"라는 언어자체가 격이나 의미에 맞

라, 감사의 절기를 갖는 것

추수감사절은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한해의 결실이 계절인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절이나 수장절 혹은 장막절을 변형하여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애굽에서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의미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절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던 구체적인 방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를 잘 살펴보고, 예수 안에서 구체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는 수장절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생활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텐트를 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거저 먹여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떨어지지 않는 신발, 옷 등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5. 현대 기독교회의 추수감사절

우리 기독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의 추수제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를 취사선택하여 지킨다거나 변형이나 대체하여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되 구체적인 삶

입니다. 전혀 기독교 문화가 아니지만 종교와 문화가 융화된 가을의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계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문화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 추수감사절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문화

한국의 명절인 추석, 설날, 구정 등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며, 그것이 귀신에 속했다고 하고 그런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접촉점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추수감사절기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문화를 구속(redemption)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저는 새벽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크리스천이 좋고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무신론 국가로, 동성애 천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있는데 어찌 이렇게 무능한가? 미국의 정치인과 지도자들 중에 훌륭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앙을 가진 결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미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정치적 롤 모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렌스에서 정 장로

A: 저 역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물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입니다. 1787년 10월 28일 27세의 젊은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2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국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18세기 말 당시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 잡아 북미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타락하기는 미국에 제2, 제3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타나기를

수송도중 25%가 넘는 흑인들이 사망할 정도로 살인적 노예수송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유 하나로 묵과되고 있었습니다. 150여년 동안 2백만 명의 노예를 수송했는데 이것이 영국국가 수입원의 1/3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막강한 상인과 재벌 넬슨체독 같은 식민지 기독교 총, 왕족과 귀족들로 구성된 노예제도 지지파들은 어떠한 반대의 소리도 "매국"으로 몰아 붙여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왜소한 체격의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논쟁을 통해 당시 영국제일의 웅변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불같은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에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라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세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암살시도를 비롯해 갖은 중상모략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영국의 목사들과 평신도 리더들 도움을 받으면서 외롭고 기나긴 싸움을 버텨 나갔습니다.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후에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게 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란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1/3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윌버포스는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2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데 한사람의 힘이 이렇게 큼니다. 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제2, 제3의 윌리엄 윌버포스의 정치인과 리더들이 나오기를 목매우 기다립시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추수감사절기(thanksgiving season)에 대하여

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로는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현대 기독교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더구나 한국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함으로 한국교회와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이들은 추수감사절은 성탄절과 부활주일과 더불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수감사절을 악습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폐지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왔기 때문에 어떤 절기나 날들도 필요 없고 신앙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율법과 구약의 준수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중에서 네 번째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를 주장하는 이들은 추수감사절의 근원을 백절이나 장막절에서 근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법으로 계시기에 첫 번째 주어진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인 감사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3. 기독교회의 추수감사절기 의미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일년 동안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season)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농경 혹은 목축문화의 환경속에서도 감사드렸습니다. '추수'라는 단어가 함유하는 것은 '곡식(음식)'이며, 이것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명 유지활동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풍성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사회 속에 살고 고도의 지식 정보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절기가 아니라 어떤 문화와 어떤 사회든지 관계있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는 곡식을 추수한다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이며, 문자 이면의 내용(의의)을 읽을 줄 안다면 기독교회의 추수감사절기는 더욱 의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4.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초막절, 수장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막절은 11월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일곱째 달 열닷새날"이라는 표현은 9월-10월에 해당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티쉬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새해의 첫 달입니다(Rosh Hashana, 2015년에는 9월 14일). 그래서 이 날에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신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때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만나 "살롬"이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신년을 맞아 인사를 합니다.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기에 농부들이 주로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는데 추수기간 동안 그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 거주하면서 추수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달인 로쉬 하사나(Rosh Hashana)로부터 2주일 후(2015년 9월 28일) 숙곳(다람젯에서 발행하여 광야출발을 위해 일차로 진을 친 곳, Succoth) 행사를 가지는데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도시 한 가운데서도 이 절기에 텐트를 치고 모여 몇 주 동안 가족적인 분위기로 5, 60명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광야생활 40년 동안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여기까지 도와주시며 의식주 삶에 함께 하심을 공동체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가장 좋은 시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달픈 개척자로서 외로운 사투를 벌인 일년 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1621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감격 속에서 뜻 깊은 추수감사제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국가적인 연휴 문화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로 연결되는 그런 연말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6.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신앙적 의미와 표현

추수감사절기는 한 해를 지내면서 주신 은혜를 또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주 좋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장막절도 초막절도 수장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사를 추수감사일로 지켜가기보다는, 추수 감사 절기(시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년 내내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가족과 공동체와 더불어 더욱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추수감사절기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7. 한국인의 전통문화에서 찾아보는 추수감사제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는 관계가 멀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제입니다. 한국의 농경시대의 종교적 문화축제인 추수감사제는 동예의 무천(舞天)으로 "하늘 앞에서 춤춘다"는 의미로 하늘님 아래서 춤추며 즐겁게 논다는 것입니다. 부여의 영고(迎鼓)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추수가 끝난 12월에 모든 백성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춤과 노래로 감사를 표현했던 종교적 제천행사였으며 고구려에서도 해마다 10월에 동맹(東盟)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은 신라 때 가배(嘉俳)라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는데 일종의 궁중문화 마당, 혹은 궁중문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배란 "예쁜 광대놀이" 혹은 "아름답게 노닐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한가위 풍습이었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서양에 있어서 세상의 마귀적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할로윈데이(Halloween Day)를 홀리윈데이(holy win day)로 구속시키고, 세속화된 성탄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 다시 기억하는 시간으로 구속(redeem)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추수감사절기는 청교도들의 신앙과 귀한 믿음의 전통에서 왔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일만큼 반기독교 정서가 한국과 미국과 전세계에 걸쳐 팽배하고 있는 만큼, 거의 모든 인터넷 정보들은 기독교와 그 절기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점점 더하고 있습니다.

9. 개혁주의 신앙의 요약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제언

(6편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강사: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림보토(LIMBOTO)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계속 급성장하는 국가이다. 인종적으로 세 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 중 하나이며 300개 이상으로 분류되는 부족을 거느리고 있다. 대다수는 무슬림이다. 작은 왕국의 흥망성쇠와 방위와 정복의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때때로 다른 부족 간 연합이 있었다. 그곳의 원주민은 원래 토

라자(Toradja)의 후예들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제도와 함께 관할지역 통치와 법정생활이 소개됐다. 근 1만명의 림보토인들이 슬라웨시(Sulawesi) 북반도 남쪽 해안에 주로 거주한다. 그들은 고론타로(Gorontalo) 부족과 함께 관계를 맺거나 함께 무리를 지고 산다. 고론타로 부족은 슬라웨시 북쪽에 위치한 3대 부족 중 하나이다. 이전에 산악지대에 거주했으나, 지금은 몽곤도우(Mongondow)와 톨리톨리(Tolili) 민족 사이에 있는 슬라웨시 북쪽 반도의 해변이나 평지에 흩어져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다.

삶의 모습

림보토의 주요 작물은 쌀, 옥수수, 그리고 사고(Sago, 종로나무의 일종에서 추출된 전분)이다. 참마와 기장(수수의 일종)은 2차 작물이며 코코넛(야자열매)을 판매 목적으로 수집 재배한다. 라탄(rattan 종로나무 줄기-고리버들 세공, 지팡이, 가구를 만드는 재료)과 다말(damar, 수지-광택제, 락 커질 재로)을 수집하고 판다. 가족은 집을 끌고 옮기는데 사용하고 말은 짐을 운반하고 타는데 사용한다. 땅과 덧과 작살로 호수에서 낚시를 위해 쓴다. 림보토인의 가업은 가부장제이다. 친족들이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살고, 결혼은 무슬림식 에 따르면 보통 중매자에 의해 맺어진다. 중매자의 역할 중 신부의 값을 협상하는데 신부의 사회적 신

분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사촌 간의 결혼을 선호하며 결혼 후 새 가정은 보통 첫 번째 아이가 생길 때까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산다. 아이가 생길 때쯤 신혼부부는 새로운 살림집을 장만하기 시작한다. 부부간이라도 각기 자신의 재산을 분리 소유한다. 결혼 후 함께 장만한 재산만 공동으로 관리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국어인 인도네시아어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시골에서 림보토인들이 살고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원주민 본토 언어를 쓴다. 인도네시아는 8백만 이상이 농토 없는 농업인들이다. 정부는 미개발된 광활한 오지를 개발하려고 이들에게 땅과 가옥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웃 부족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한다. 그러나 고론타로와 그 친족들, 림보토족들은 무슬림으로 남아 있다. 선입관의 많은 장벽이 이들 두 부족 간에 존재하며 림보토족의 원주민교회가 없어서 현지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의 핍박이 두려워 이들에게 전도하지 못한다. 신앙 이슬람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인 대다수가 믿고 있는 지배적인 종교이다. 14세기 전에는 힌두교가 만연했지만 현재는 아주 소수만 남아 있다. 인구의 14%가 기독교 신자이고 주로 개신교신도이며 중국인들은 불교와 도교를 따른다. 정령숭배가 오지 부족들의 신앙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슬람이 숫자

적으로나 정치적 힘으로나 빈번하게 우위를 점거하고 이슬람을 편애하고 있어 기독교의 확장을 제한하고 대중의 생활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본질적으로 림보토인 모두가 무슬림이다. 비록 그들의 생활사의 수많은 의식과 종교적인 신앙이 이슬람과 이전의 토속신앙과 혼합하여 존재한다. 그들 가운데 기독교는 볼 수가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림보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용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절대 부족하고, 현재 이들을 향해 달려갈 선교기관도 없다. 뜨거운 중보기도와 선교활동 노력으로 림보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북한서 성경 본 사람 급증

북한은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지만 비밀리에 제한적으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중 성경을 본 사람이 2001년 이후 크게 늘었다. (새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는 200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1만7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2015 북한종교자유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1만183명 중 1만146명(99.6%)은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제한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거나, 공식 종교시설에서 특수목적에 위한 종교 활동이 형식적으로는 이뤄지지만 일반적 종교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97년 이후 탈북자부터 2015년 탈북한 응답자까지 거의 동일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이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종교 활동을 하다 체포될 경우 53.4%는 정치범수용소, 11.5%는 교화소(한국의 교도소), 2.8%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탈북 주민들은 응답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측과 면접한 탈북자 신모씨는 "북한 보위부에 잡혀갔는데 성경책이 어디서 샀는지 따지더라"며 "밤잠도 안 재우고 묶어 놔다. 3-4일 굶기고, 물 한모금 안 줬다"고 폭로했다. 신씨는 "독방에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계호(戒護)들이 때렸다. 영양실조에 걸려 걷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탈북자 최모씨도 지난해 11월 면접에서 "중국에서(중략) 목사한테 성경책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 종교를 선택하고 신자를 모으고, 비밀스럽게 기도드리고 했는데 걸려서 다 잡혀갔다. 잡혀간 사람들 다 못 나왔다.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면접한 탈북자 김모씨도 "아들이 입당까지 했었는데, 다 없어졌다"며 "인민반(북한의 최하급 행정조직)에서 신앙을 믿던 반정부세력을 철저히 소탕했다고 한다. 각성된 눈으로 신고하라고. 시·당에서 나와서 그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종교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북한생활 당시 종교시설을 방문했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0.7%였다. 2.8%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었다. 타인의 종교 활동을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그보다 많은 5.1%나 됐다.

2000년 이전 탈북자 중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9명에 불과했지만, 그 후 탈북자 중에는 424명에 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 탈북한 경우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자 비율이 6~7%대를 넘어서는 등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탈북자 중에선 7.6%가 성경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백서에서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종교박해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4월

중순부터는 '기독교를 접촉한 주민들을 체포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하달돼 중국 내륙에서도 탈북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적극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주발되는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압송'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폭로했다.

보존소는 "북한당국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가보위부와 정찰총국 요원, 중국 내 영사관 직원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이전과 달리 사진을 갖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체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사상적 동요와 이반 가능성을 초기에 단절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서 첫 '무슬림 과반' 시 의회 탄생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도(이슬람 공포증)가 확산한 미국에서 최초로 '무슬림 과반' 시 의회가 탄생했다.



6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인근 인구 2만2천 명의 소도시인 햄트래픽에서 지난 3일 선거를 통해 3명의 무슬림이 시의원으로 선출됐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햄트래픽의 시의원 중 현직 의원 1명을 포함해 무슬림은 4명으로 늘었다.

지역 일간지인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등은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햄트래픽에서 무슬림이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역사가 열렸다고 의미를 줬다. 시의원 6명 중 절반인 3명을 뽑은 이번 선거에 총 6명이 출마했다. 2명의 현직 의원을 포함한 무슬림 3명이 득표율 1-3위를 휩쓸었고, 4-6위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었다.

원래 이 도시는 폴란드 출신 이민자들이 터를 닦은 곳이었다. 폴란드 출신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7년 미국 방문 당시 햄트래픽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중동과 남아시아, 남동부 유럽 출신 이민자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도시 인구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중동에서는 주로 예멘,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유럽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온 이민자들이 햄트래픽에 새로 정착했다. 세 국가 모두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이기에 햄트래픽은 폴란드-가톨릭 도시에서 순식간에 무슬림의 도시로 변했다.

2010년 미국 인구통계국의 조사를 보면, 햄트래픽 인구의 41%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 출신이다. 아랍 출신은 24%, 방글라데시 출신은 15%, 보스니아 출신은 6%로 집계됐다. 인구 다수이던 폴란드계는 12%로 줄었고, 흑인이 아랍 출신 다음으로 많은 19%를 형성했다.

인구통계국 조사에서 종교를 묻지 않기에 이 도시의 정확한 무슬림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인구의 1/3 또는 최대 절반을 무슬림으로 파악한다. 이는 무슬림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0.9%(277만 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볼 때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무슬림 비신자이면서 지역 공동체 대표를 맡은 빌 메이어는 "무슬림은 햄트래픽에 안정과 안전, 진지함을 가져다주고 마약을 비롯한 범죄율을 낮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난민신청자 76만명 육박

독일로 유입된 난민 신청자 수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75만 8천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내무부는 5일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18만 1천 명이 추가됨으로써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 기록된 이 수치는 월간 최다였던 9월의 16만 3천 명보다 1만 8천 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난민 신청자들의 국적별로 보면 시리아가 전체의 3분 1로 가장 많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올 한 해 난민 신청자가 8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공식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난민 급증세가 이어진다면 양겔라 메르켈 총리나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가 간헐적으로 언급했던 1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하지만 가장 최근 공식 예측치로 제시한 80만 명을 재차 수정할 뜻이 아직 없다면서, 예측치를 또 올리면 자칫 독일로 난민을 초청하는 것인양 난민 밀입국자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풀었다.

미주리대 교수들, 인종차별 총장 퇴진 운동 가세

인종차별 논란이 한창인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교수들이 사태를 악화한 총장의 퇴진 운동에 가세했다.



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종차별 확산 사태를) '걱정하는 교수 그룹'은 9-10일 이틀간 수업을 취소하고 교내에서 인종 차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동료 교수에게 촉구했다.

'걱정하는 교수 그룹'의 대변인인 엘리사 글릭은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내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한다"면서 "모든 교수가 강의를 취소하고 학생 지지의사를 표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수들의 강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미주리 대학원생 단체 두 곳도 교내 인종 차별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팀 울프 총장의 처신을 비난하며 9-10일 수업과 근무를 거부하고 그의 퇴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미주리대 사학과도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며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을 징계해서 사려분별과 믿음과 경의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말씀을 앙시적으로 듣는 것,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정구의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또는 절기를 따라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thanksgivings upon special occasions... are, in their several times and seasons, to be used in an holy and religious mann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루만이 아니라 절기로 보내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면에서 계속〉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21장 5항)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분별과 믿음과 경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시적으로 듣는 것,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정구의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또는 절기를 따라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thanksgivings upon special occasions... are, in their several times and seasons, to be used in an holy and religious mann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루만이 아니라 절기로 보내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 이 와중에 울프 총장이 미식축구팀 흑인 선수를 꺾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불만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대학원생 조너선 벤틀러가 지난주부터 울프 총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에 돌입한 데 이어 '1950년을 격정하는 학생들'이라는 흑인 학생 중심의 인권 단체는 2일부터 교내 광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재단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950년은 미주리대가 흑인 학생의 입학 허용을 역사적인 해다. 그럼에도, 울프 총장은 퇴진할 뜻이 없다며 학생들과의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8일 밝히며 내비쳤다. 그는 다만 지난달 학교 모교방문의 날 행사 때 인종차별 해명을 촉구하는 흑인 학생을 외면하고 차를 돌려 달아난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이 학교 졸업생인 클레어 매캐스킬(미주리·민주) 연방 상원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제이 너스 주지사는 당장 학교 측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성의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주 하원 고등교육위원장인 공화당의 스티브 쿡슨 의원은 일련의 사태는 차별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방담으로 일관한 울프 총장이 더는 학교를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그의 퇴진을 종용했다.

미 공화 상원의원들, 부시 대신 루비오 앞으로

최근 상층세를 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동료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속속 확보하고 있다.



'아웃사이드' 돌풍에 밀려 당 주류 진영의 후보들이 영 맥을 못 추면서 그동안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던 상원의원들이 루비오 의원의 급부상 조짐에 잇따라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8일CNN 방송과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콜로라도)와 스티브 데인즈(몬태나), 짐 리쉬(아이다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지난주에 연이어 루비오 의원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밀겠다고 선언했다.

루비오 지지 첫 테이프를 끊은 가드너 의원은 지난 2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오늘 이 자리에서 루비오 의원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의 각종 도전과제에 맞서 이 나라에 위대한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루비오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의 숫자상승은 상원에서 쟁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확보한 2명(유타주 오리엔 해치·네바다주 딘 헬러)을 단숨에 앞질렀고, 특히 1주일 만에 3명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립적인 의명의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내에서도 부시 전 주지사에 실망감이 크다"면서 "이제는 루비오 의원이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CNBC 방송 주최 3차 TV토론에서 부시 전 주지사가 자신의 의회 표결 불참 기록을 공격하자 "나는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 부시 전 주지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다"며 차별화를 시도해 큰 박수를 받았고 이후 한자릿 수를 해마다 그의 지지율은 10% 초반대로 급등하며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축제처럼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려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감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주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보낸다면 추수감사절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추수감사절기로 보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될 줄입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계속)

〈2면에서 계속〉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직관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항목 별 비용 청구서를 도입하려던 통상위원회의 시도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시장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장례업계에는 경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묻으려는 애도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려 하지 않는다고 바버라 베이록은 말한다. 그녀는 장례식소비자연합 매릴랜드와 근교 지역의 회장이다.

"장례식 서비스를 구할 때의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이성적이지 않고, 취약하다. 장례업계가 간접비를 낼 수 있을 만큼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객들의 마음 상태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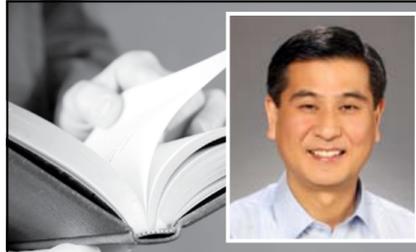
녹색 매장 지지자는 녹색 매장이 전통적인 장례식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관은 5천 달러, 방부처리하는 일반적으로 1,300달러 정도 든다. 그

에 비해 간단한 수의로 싸 죽시 매장하면 죽시 화장하는 정도, 혹은 그 이하의 비용이 든다고 전국가정장례식연합은 말한다.

그러나 슬로컴은 아직 많은 소비자들이 비용과 정서를 동일시한다고 말한다. "제일 좋은 관을 쓰면 뭐하는가? 아무런 좋은 관을 써도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이다. 돈이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를 극복하는 데는 문화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죽음을 녹색으로(Greening Death)'의 저자 수전 켈리는 죽음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감정적, 철학적으로 조정되어야 이 운동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다.

"녹색 매장 운동은 우리 손을 떠나 있었던 장례 관리를 되찾는 것일 뿐 아니라, 망자를 돌보는 우리의 방식을 죽음을 인식하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자연에 대한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4)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고난의 끝, 방향의 시작 (6)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전적으로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적 원리를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의 신앙의 훈련 장소인 동시에 신앙을 실천하

고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했다. 빛의 특징은 비추는 것이기에, 그들은 자신이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이 빛의 삶을 비추며 살았을까? 그들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그다지 커다란

을 유지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각자가 밝히는 빛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기 전에 신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로마의 모든 시민에게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막강한 로마 군대의 최고 자리에 있는 황제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종교적 사상과 애국 사상이 모든 군인에게 정

마의 국가 종교를 수용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의 형태를 갖춘 군대 정신을 추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신분과 로마 군인의 신분을 병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성도들에게 흔들림 없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다.

예를 들어, 터툴리안은 군대에 지원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강하게 권면하

는 성도들의 정당한 삶을 허용을 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다하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 탄력을 받은 해석이다. 아무쪼록 군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향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 신앙을 지닌 자들이 감수해야했던 사회적 불이익이 사라졌다. 사 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황제의 재가를 얻어 로마제국을 주름잡던 실 세들은 물론, 사회의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시민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성도들을 향해 자유롭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제국이 자랑하는 막강한 힘의 축으로 자리 잡았던 군대에 속

가는 방향을 거부할 어떤 힘이냐 동기가 전혀 없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까지 설명대로, 초대교회에서 로마군인과 신앙인의 신분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좋은 예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콘스탄틴의 주도한 로마제국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상황이었다. 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시절에는, 핍박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다.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강력한 빛으로 사는 것보다 빛의 신분으로 세상에 잘 적응해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행하게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5:14-16; 에베소서 5:8-14; 요한 일서 1:5-7

빛은 어둠을 없앤다. 어둠이 빛을 가리는 법은 없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다. 이제 그 빛을 성도들이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받았다.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 등불을 놓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곳이다.

성도들을 빛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각자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며,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의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세상이 매우 어둡기 때문이다. 미약한 빛도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통해 분명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이다.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빛이 드러나는 것이니, 후시 속 속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보다 빛의 신분으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원부터 살펴보아야

는 영적 전정터이다. 참된 신앙은 세상 안에서 타인에 눈과 입술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신앙이어야 한다. 물론 가장 큰 숙제는, 세상 안에 살면서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질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세상 안에서의 영적 가치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세상을 향한 빛

그리스도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어둠을 몰리치는 빛이라고 하셨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지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몰리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자연히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출발과 함께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익숙해졌던 삶과 결별을 해야만 했다. 기독교 신앙이 대중화되기 이전, 사람들은 신앙인의 활동을 수상한 눈으로 관찰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시련이 더욱 가중되면서 신앙인들이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사회적 신분과 재산을 과감히 포기해야 했다.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짙은 세상의 어둠에 비해서 매우 미약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미련을 두지 않는 것, 떠나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켰다. 세상이 그들을 거부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어둠을 향해 비추던 그들의 빛은 매우 선명했다. 세상 안에서 빛의 신분

신에 함께 녹아져 있었다. 로마 군대는 군인들의 집합체 이상이었다. 막강한 군사력을 전통적으로 최고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원로원보다 더욱 중요한 실세의 자리를 굳혀 갔다. 로마 군대는 로마의 상징이 되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자, 초대 교부들은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며 국가에 유익이 되더라도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변증하였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대에 속한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국가에 대해 충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2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3세기 초부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생겨났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로마 군인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평화를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받아, 나라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갈등이 찾아왔다.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로

였다. 동시에 그들에게 성도로서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의 잔을 마신 성도들도 있다. 세상의 빛으로 살려 놓고 노력한 결과였다. 물론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은 각 개인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이었다.

■ 세상에 적응하는 빛

기독교 신앙을 가진 로마 군인으로서 전정터에 나가면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있었다. 과연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답이 한 가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오리겐과 같은 교부들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기도과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그 이유는,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흘린 피를 로마 국가의 신에게 바치는 의식과도 같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일부에서

한 성도들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오랫동안 그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환경으로부터 벗어 나게 된 것이다. 신앙을 가진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할 일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동시에,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예상과 달리 전개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군대생활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전과 달리 콘스탄틴 황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도를 시작하였다. 교회가 황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차 지적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그들이 로마군대가 이전과 같이 이방 종교적 신념을 기본정신으로 삼지 않기에 안심해도 된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도한 것이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묵과했던 것이 있었으니, 성도들에게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성경에 위배되는 이교적 의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군인이 속한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들을 지도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지만, 그들에게 콘스탄틴의 군대가 나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고 번역했는데, 새번역에서 단순히 "기도에 힘쓰다"로 번역했다. "전혀 힘썼다"고 번역한 헬라어는 'proskartereo'로 '힘쓰다, 몰입하다, 열심히 하다'는 뜻이다. 새번역 성경처럼 기도에 힘썼다고만 표현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개역성경 번역자는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번역했던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구절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proskartereo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한 구절을 더 살펴보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proskartereo)(행2:46). 여기에서는 웬일인지 단순히 '힘쓰고'로만 번역했다. 기도와 관련해서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번역했으나 모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저 '힘썼다'라고만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번역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고 번역했는데, 새번역에서 단순히 "기도에 힘쓰다"로 번역했다. "전혀 힘썼다"고 번역한 헬라어는 'proskartereo'로 '힘쓰다, 몰입하다, 열심히 하다'는 뜻이다. 새번역 성경처럼 기도에 힘썼다고만 표현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개역성경 번역자는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번역했던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구절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초대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떡도 먹고 (성만찬) 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0면으로 계속)



정말 그랬을까?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2)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전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을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행1:14, 개역한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를 전히 힘쓰니라"(행2:42, 개역한글). 여기에 사용된 '전혀'는 문법적

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다. '전혀'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문법적으로는 개역개정에서처럼 '오로지'라는 단어를 넣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전혀'라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사가 들어감으로 유명한 구

절이 되었다.

새번역과 비교해보자.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행1:14).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행2:42).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2) 579-76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ppcchurch.com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평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www.iejcs.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 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주일 1부예배(현):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현):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현):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현): 오후 1:45 대위헌찬양: 오후 1:30 찬양대헌찬양: 오후 1:15 (현) 안연 11세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Fax: (410) 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위헌찬양: 오후 1:30 찬양대헌찬양: 오후 1:15 (현) 안연 11세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8) 425-4579, Fax: (508) 435-5467 41 Main St., Hollis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새벽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 529-0900 / 0998(박스경음)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380) 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 527-0981, Fax: (206) 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943-9920, Fax: (702) 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사택: (501) 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iejcs.org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후 8:00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 634-8705(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Fax: (703) 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www.mpcow.org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토) Tel: (804) 560-7500, Fax: (804) 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www.jkc.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후 1시 수요일 예배: 오후 8시 수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253) 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27-0630, Fax: (215) 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Tel: (860) 643-4738, Fax: (860) 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리더십 코멘터리 (4)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리더에게 비전이 중요한 이유

비전(vision)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릇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품는 한계가 바로 비전의 것이다. 에베소서 3장 20-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면 비전은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상상할 수 없는 큰 비전을 가져라

한 유명한 골프선수가 세계 최고의 갑부인 왕의 비밀스런 개인 초대를 받았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내서 그를 데려왔다. 왕과 골프선수는 며칠 동안 환상적인 골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골프선수가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왕은 비행기에 막 오르려는 그에게 물었다. "멀리서부터 귀중한 시간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고 비전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사용 비전 가진 사람은 실패 두려워 아무 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하는 것인 기도의 그릇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인 비전의 그릇 이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비전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와 비전의 그릇이 크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비전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광대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그릇, 비전의 그릇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할 때가 있다. 오늘날 리더에게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비전은 구체적 삶의 목표다

비전을 이루는 비저너리들은 비전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고, 인생의 모든 일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야구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안타를 쳤다. 이 선수가 너무 흥분해서 1루로 뛰어 간다는 것이 그만 3루 쪽으로 뛰어가다가 아웃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야구 선수가 평생 처음으로 만루 홈런을 쳤다. 너무 흥분해서 홈에 들어올 때 홈을 밟지 않았다. 상대팀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아웃이 되어 3루타로만 인정받고 홈런은 취소되었다.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도록 애쓰고도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신생아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힘들다. 그러나 제아무리 힘들다 해도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천한다

을 내어 저를 찾아주셨으니 왕으로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골프 선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귀한 분과 함께 골프를 치고 저를 환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닙니다. 제가 꼭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야 선생님이 저와 함께 골프를 친 시간들을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실 테니까요" 순간 골프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골프채가 좋겠군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골프선수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하고 궁금해 했다.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여겨지기 박힌 골프채일지도 몰라. 세계 최고 갑부인 왕이 보내는 선물은 정말 대단할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골프선수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었다. 마침내 짐으로 돌아온 그는 날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자신의 선물을 가지고 올 우체부름 기다렸지만 왕이 보낸 다던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다. 마침내 몇 주가 지나고 기억이 거의 잊혀져갈 무렵 왕이 서명한 편지가 도착했다. "아니, 그런데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가고 달랑 편지 한 장이라니" 그는 크게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어 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안에는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코스 선물로 주는 기증서(deed of gift)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비전을 가졌는가?

비저너리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

미국 어떤 구두회사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구두를 팔기 위해 시장 조사를 했다. 마케팅 리서치를 위해서 조사팀이 파견되었다. 조사팀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회사의 CEO에게 보고했다. 한 팀은 아프리카엔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성 전무합니다"라고 보고했다.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CEO에게 한 것이다. "우리 회사는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해요"라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 팀은 '시장성 무한대'라는 보고를 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두를 팔 수 있다는 정반대의 보고를 한 것이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시장성이 무한하다고 보고한 팀은 가능성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다. 비판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좁은 안목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미리 겁을 먹고 보이는 현상만을 본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다. 비저너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며 전진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주의자들은 항상 문제를 과장한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된다. 이와 반대로 낙관주의자들은 비전을 과장한다. 그러나 비전은 아무리 과장해도 손해 보는 것은 없다. 비록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토끼밖에 그리지 못했어도 그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이다.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리더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외로운 모험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과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

비전의 길을 걸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루저가 아니다

민수가 14장 8,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밭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적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했지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밭에 불과하다"라고 당당히 말했던 것이다. 담대함은 믿음의 소산이다. 담대한 신앙인은 주위사람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행동을 촉구하며 언제나 보장된 승리를 믿는 사람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자 '루저'가 아니다. 그들은 역사와 조직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리더이다.

이메일: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믿음복권' 대박 맞은 여인 라합

출애굽사건들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기회가 되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오시는 누구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예리고 탐색위해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비록 천한 기성으로 호구지책을 삼는 이방 여인 라합은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 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며 자신들의 가족을 정복 시에 살려줄 것을 보장받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뿐이지, 실제 본인이 체험으로 만난 하나님도 아닌데 생명을 건 모험을 합니다. 약속대로 용감하게 정탐꾼을 믿음으로 붙들 줄을 내려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후에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누구나 받아주시는 넓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뿐 아니라 남은 생애를 최고로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기성이 과거를 일소에 붙이고 유대인 남자와 떼땀이 결혼해 최상으로 행복하게 살며 메시아의 집안이 됩니다. 약속 따라 구원받은 자녀를 책임지시는 충성,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후에 본 이스라엘인 어느 누구보다도 중생을 다해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딛은 대로 인도하시어 믿음으로 산 본보기가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으로 간 연후에 자손들이 나의 생애를 뭐라 평가 할까? 새삼스레 저들에게 말씀사랑하며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 애쓰고 열심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의 사랑하는 마음, 내 몸을 그리워하고 보고파 하는 그런 마음의 예기를 듣고 싶은 소박한 소원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씬표없이 매진해왔던 저의 성공 사역이 아무리 죽기로 뛰어도 만족감은 무지개처럼 달아나 늘상 저 멀리 있습니다. 기진하여 탈진해도 여전히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허전합니다. 과연 제가 죽기로 충성한다면 달려온 사역들이 제대로 주님과 더불어 동역한 것이라면 세상일처럼, 언젠가 올 것처럼, 언젠가 오지 않을 내일을 기다리는 고도와 같습니다. 이 길은 무언가 이상합니다. 성공 사역에로의 성취위해 언젠가부터 바뀌어 있는 나의 실제적인 사역의 목표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일에 빠져, 지치고, 불만족스럽고, 걸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 힘에 들고... 이런 일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풍처럼 달리다가 붙들어 앉히시니 멈추어 많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재조정해 봅니다. 라합처럼 말예요. 믿음의 남편 따라 행복한 아내, 행복한 엄마, 따스한 할머니로, 이웃에게 봐드봐드 만나고픈 정겨운 이웃으로 하늘을 실어 나르는 행복전도사나 되어야겠다고 말이지요. 소박한 새로운 꿈으로 내 마음을 채우니 내 안에 기쁨이, 주위에 둔 모든 이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고 하는 행복이 내게 내려옵니다.

그래요, 주님... 한참동안 잊고서 작은 일에도 흥분하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을 덧입고 주님의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려 합니다. 행복전도사... 참요요, 저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제 마음을 은혜로 붙잡아 넘치도록 성령님, 제 마음의 지성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가득 채워 넘치도록 부으소서. 영매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나무에 붙어있었습니다. 믿음에 관한한 저도 라합따라 대박 받으렵니다.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방송 송출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5월	9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월 19일 ~ 10월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 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이천장로교회(이천목사)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중진목사) 11월 13일 ~ 16일 함동동인교회 남부시절 재지부회 과전교회 (조진우목사) 16일 ~ 18일 예배교회 (조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18일 ~ 2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15일 ~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11일 ~ 18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22일 ~ 25일 강화금식기도원 (안양) 27일 ~ 31일 한울교회 (유영희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19일 ~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 25일 강화금식기도원 (안양) 27일 ~ 31일 한울교회 (유영희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11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9일 ~ 1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6일 ~ 1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3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28일 ~ 3월 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25일 ~ 2월 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22일 ~ 2월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고난도 축복이더라

전에 공부할 때 한번쯤은 책상 앞에 큰 글씨로 써놓은 글이 있을 것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정말 성경구절 같은 생각이 드는 말이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소절이 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전등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님과 가슴 조이던 먼 뉘안길에 인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내 노란 꽃잎 하나를 피우기 위해 된 서리는 한 밤에 철이 내렸고. 나는 긴긴밤에 한 숨의 잠도 자지 못했다 보다." 여러분! 천동이 여름 내내 하늘이 무너지듯 소리 쳤던 그 이유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소쩍새가 소쩍소쩍하면서 피를 토하

듯 우는 울음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산고라는 것이다. 내가 이리뒤척 저리뒤척 잠을 못 잔 것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산고였다 것이다. 인생 고난의 의미를 노래한 글이다.
 읊은 의로운 부자였다. 동방에서 읊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하리만큼, 그는 물질에서도 부자였고, 도덕과 신앙에서도 아주 큰 부자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도, 아내도, 친척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읊기서 마지막장 42장은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고난을 잘 받아낸 사람은 엄청난 축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난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고3들이 함께 모여 수학여행을 갔다가 번지점프 하는 데를 올라갔다. 그런데 고3학년 학생은 그동안 운동을 안하고 공부만 하다보니가 담력이 약해서 100m 정도도 뛰어 내리지를 못한다. 영국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격려하며 그러더라. "영국은 신사인데 신사가 먼저 뛰어내려야지, 뛰어내리지 못하면 그게 신사냐?" 하니까 영국 학생이 그냥 앞도 안보고 짹 뛰어 내리더라. 그러자 독일 선생님이 "우리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에 강국이 아니냐? 독일의 국민정신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서 펄쩍 뛰어 내리더라. 일본 학생은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데 영국하고 독일한테 져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냥 짹 뛰어 내리더라. 그런데 문제는 한국학생이었다. 겁에 질려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한 마디 하니까 그렇게 겁에 질려있던 학생이 갑자기 뛰어 내리더라. 그래서 선생님에게 학생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 내신 성적에 관계가 있다." 그랬다는 것이다. 이

것이 한국 고3의 인생이다. 고3은 내신과 이어지는 고난의 기간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길은 고난과 함께 살아야 하는 여정이야. 당뇨 혈압환자에게도 의사가 그런다. 당뇨 혈압을 떨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친구삼아 잘 데리고 함께 가라! 그것이 당뇨 혈압환자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난여름은 내내 덥지는 않았지만 며칠은 무척 더웠다. 새벽 4시인데도 문을 열면 더운 공기가 숨을 팍팍 막았다. 그래서 그 더운 공기 속을 걸어야 했는데 한 번은 그 무더운 여름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 겨울은 추어야 겨울이지, 여름이 왔다가 이 세상을 한 번쯤은 뜨겁게 하고 가자, 선선한 바람만 불어주고 가면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지. 생각을 하면서. 그 래 인생도 그렇지, 고생스런 것이 있어야 인생이지 아니면 천국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 금년 여름은 더웠지만 그러나 그 여름도 그렇게 지나간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뿐인 인생길이지라도 그 한번뿐인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
 전에 TV프로그램 중에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프로가 있었다. 그 것을 보면 한 사람도 평탄한 인생은 없다. 질병이든 실패이든 좌절이든, 세상적으로 말해서 기구한 운명인데 야무지게 그 고난과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무슨 저주가 아니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고통격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난이라고 다 싫어할 것만은 아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 고난을 죄악시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죄인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격 인생을 만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인생이다.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인생이다. 사도바울도 평생 병을 앓아다녔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랬다.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축복을 받는 법이다.
 결국 오늘의 환란이 내일의 소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이다. 모래알이 들어가야만 값진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되는 것처럼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

텐마크나 영국, 독일, 미국이든간에 입양 보냈던 그 아이들이 본국에 와서 20년 전에 나를 고아원에 버린 부모를 찾으려 하는 말이 있다. "나를 고아원에 버린 것을 절대로 죄라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저를 버렸음으로 외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한국 부모 곁에 있었다면 어떻게 내가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눈물을 흘리면서 버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따게 됐고 외국의 박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는 더 잘 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저 좀 만나주세요" 한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넣어주신 고난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생을 품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들 싫어하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다시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아픈 모래를 품은 조개가 바로 진주를 품은 조개이다.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 오리라는 말씀 되새기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연단 받아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고난도 축복이더라 고난도 축복이더라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아메리카연합재단 미주한인재단 창립대회

11월 12일(목) 오후 5시 나성동산교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The American Korean United Foundation, USA) 대회 준비위원장 이우호 회장이 창립대회가 오는 11월 12일(목) 오후 5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11월 3일 LA 한인타운 내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메리카연합재단 미주한인재단 창립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성우 목사가 대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다"라고 재단 창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미주한인 이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관해 미국 땅으로 우리를 이민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찾아 미주한인의 정체성, 즉 제2의 청교도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우리 미주 한인임을 자각해,

미국과 아메리카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류문화와 성서문화를 결합한 복합문화를 형성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창립대회장에는 한기형 목사, 준비위원장에 이우호 목사가 맡는다. 창립대회는 총3부로 나뉘어 축하예배, 창립식 및 장학금 수여식, 만찬과 축하음악회로 진행된다.

다음날인 13일(금) 오전 10시에는 한반도 통일이후 북한선교전략 포럼과 전국 지회장 지역보고 발표회 및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의 전략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 1시 30분에는 진선골프대회를 갖고 저녁 7시 로스코요데 클럽하우스에서 오픈키오우티지 창립대회를 갖게 된다.
 ▲문의: (305)572-9997.
 (박준호 기자)



2015년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 신임회장 장영춘 목사 제18대 회장...정기총회서 추대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2015년 정기총회가 11월 6일 오전 11시30분 옥스퍼드호텔에서 개최돼 장영춘 목사(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사진)를 제 18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 위클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정요한 목사(크리스천헤럴드) 기도, 박재호 목사 설교, 이정근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마28:16-20)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들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전파에 헌신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무처리를 통해 서기보고와 회계보고가 있는 후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27년 전 언론협이 탄생된 후 지금까지 회장직을 고사해왔던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회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며 발원인 장영춘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은 조명환, 정요한 목사를 선출한 뒤 남은 임원선출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으며 회장단에서는 부회장 1명 추가로 임승태 장로, 서기 이성자 전도사, 회계 서인실 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올해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회 실시한 독후감 모임을 통해 접수된 작품들의 심사를 위해 전인철 목사(OC 생명의말씀사), 백승철 목사(에피포토 대표), 김신웅 장로(전 문인협 회장), 전삼미 장로(소설가/시인)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가 마쳐지는 대로 시상식을 갖고 지면을 통해 수상작품을 각 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독후감 모집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은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미주한인재단은 미주한인 113주년 기념 및 2016년 미주한인의날 기념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주한인재단 관계자들

2016 미주한인의 날 행사 감사예배로 시작 미주한인재단 1월 11일 시작...한인이민 113주년 기념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김성웅)은 한인이민 113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한다. 2일(월)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미주한인재단은 한인 이민선조의 개척정신을

기리고 한인사회 발전을 되새기는 '미주한인 113주년 기념 2016 한인의 날 행사'의 주요 일정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1일부터 LA 등 미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단은 연방 의회가 1903년 1

13일 하와이 이민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을 기념하는 '미주한인의 날'을 지난 2005년 지정한 가운데, 113주년을 맞은 오는 2016년 1월 13일을 전후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 LA 카운티와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한인사회가 한인의 날 선포식, 감사예배, 문화예술 공연, 태극기·성조기 게양식 등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 행사는 한인 이민 113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 및 3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미주한인재단 김성웅 전국 총회장은 "미주한인의 이민의 역사는 미주한인기독교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2016년 1월 13일 전 주일인 10일이나 17일에 남가주 교계와 함께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또한 이민역사는 이민 1

세대들만의 축제가 아닌 한인 차세대들과 비 한인들도 함께 축하하고 즐길 수 있도록 K팝 공연 혹은 CCM공연과 차세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다"며, "12일부터 15일까지 경동갤러리에서 김소문 화백 미술 전시회와 궁중한복 패션쇼 등 인종과 나이를 초월해 한인 이민 113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범 동포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 지역 미주한인의 날 관련 행사는 △1월 9일: 미술대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11일: LA 월서초등학교 헌기식, 주의회 한인의 날 선포식 △12일: LA카운티 수퍼바 이저위원회 선포식 △13일: LA 시의회 선포식, 미주한인의 날 축하공연 △16일: 차세대 세미나 등이 이어진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주최 목회자 컨퍼런스 성황 강준민, 민종기, 김한요 목사 강의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국어 석사과정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이 주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변명혜 교수 사회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로버트 듀크 박사(아주사퍼시픽신학교 임시학장)의 환영사, 엔리케 존 박사(도시사문화학과 부학장)의 시작기도가 있었으며, 변명혜 교수가 내빈 및 강사 소개를 했다.
 이어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건강한 목회자의 분노관리'라는 주제 강의를 했다. 강준민 목사는 "신자들에게 대한 기대가 어긋

날 때마다 깊은 분노가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들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특히 목회가운데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며,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터뜨릴 때 결과가 좋지 않다. 목회자는 지도자다. 항상 바둑에서 복귀하듯 그날그날 잘못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는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탐욕 이기심 분노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목회가 어렵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목회가 어렵다는 걸 받아들일 때 목회가 이해되기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인 석사과정프로그램 주최 목회자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시작 된다"고 말하며 "목회는 호불호가 분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설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목사의 강의에 이어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가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설교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한아름선교합창단원들이 '주님의 궁전'(김주경시 이해경 곡)을 들려주고 있다.

제 15회 창작성가의 밤 5개 합창단 참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주최...새 창작곡 10곡 선보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 주최 제 15회 창작성가의 밤이 1일 저녁 6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와 미주한인창작회가 후원한 창작성가의 밤은 조성환 목사 기도로 시작됐으며 김명옥 부회장 사회, 박성규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단에 오른 '기독합창단'(지휘 이경원 반주 이지은), '한아름 선교단'(지휘 이경희, 반주 김미영), 'LA 레이디스 싱어즈'(지휘 이종현

반주 홍영례), '미주영광교회'(지휘 황현정 반주 김경희) 'Kenosis Chamber Choir'(지휘 Elliott bark 반주 오지희) 등 5팀의 합창단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창작곡 10곡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다.
 배경환 목사는 "창작 성가의 밤을 열게 돼 감사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매년 창작의 밤을 준비해오고 있는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교협 42회기 이취임식

뉴욕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 제 42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제 30대 이사장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6일(월) 오전 10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 279-1414

부목사 청빙

폴로라도 덴버에 소재한 벨엔교회(담임 오성관 목사, KAPC)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 졸업자(M. Div)나 졸업 예정자로 청년사역이나 찬양사역 경험자를 선호한다. 제출서류는 본인과 가족 소개 triangle 사역 비전과 소개서 triangle 경력 증명서 triangle 추천서 1통 triangle 설교CD나 링크화일.
▲문의: (303)423-1392, (720)373-8318, bkpchurch@gmail.com

[정정: 본지 제 1558호 10면 "강기봉 원로목사 추대, 임일송 위임목사 임직" 기사의 사진설명을 "뉴욕백인교회 강기봉 원로목사(오른쪽)에게 이준호 노회장이 추대패를 전달했다"로 수정합니다.]



한기부 뉴욕지부 대표회장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뉴욕에 성령의 불을...”

한기부 뉴욕지부 대표회장 이취임식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뉴욕지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4일 목양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린 5대 대표회장 송병기 목사가 취임했다.

송병기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심껏 일하겠다”며, “첫째 뉴욕에 성령의 불붙이기, 둘째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 셋째 세계 선교단체 돕기 등 3가지를 주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취임예배는 부회장 이만호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김영환 목사, 특별찬양 김정인 집사, 설교 송일현 목사, 인사말 장항희 목사, 이임사 및 환영인사 정순원 목사, 취임사 송병기 목사, 축사 최영식 목사, 장석진 목사, 격려사 임준식 목사, 축사 허걸 목사, 황동익 목사, 이종명 목사, 특송 김동호 목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광고 이규형 목사, 축도 황경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일현 목사(한기부 중경대표회장)는 “성령으로(행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903년 장대현교회에서 시작한 한국 부흥운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47년전 신형군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등 각 교단장이 주축이 돼 시작됐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과 전도학교 등 학문적으로 흘렀지만 성령운동을 해야 교회가 안정이 된다.”고 말하고 “2000년 ‘성령의 불을 세계로’라고 외치며 7년전 뉴욕에 한기부 지부를 세우는 등 부흥과 선교 두 기치를 들고 나가고 있다.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중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한기부에서는 송일현 중경대표회장과 장항희 제47대 대표회장 당선자, 최영식 대표회장, 임준식 선교회장, 김동호 서기 등이 참석했다.
한기부 뉴욕지부는 황동익 초대 미주본부장을 비롯해 1대 황경일 목사, 2대 김영환 목사, 3대 이종명 목사, 4대 정순원 목사에 이어 5대 대표회장 송병기 목사가 취임했다. 그동안 뉴욕에서는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던 한기부는 이번 새 대표회장 송병기 목사를 맞아 기대를 갖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필라교협 새 회장에 안문균 목사

제 36회기 정기총회...부회장 김성철 목사, 최승찬 장로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해근 목사) 제36회기 정기총회가 지난 2일 오후 7시 새한장로교회(담임 고택원 목사)에서 개최돼 신임회장에 안문균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모든 회무 처리를 일사천리로 마친 후 정, 부회장을 증경회장단이 공천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안문균 목사(주님의교회)

△제1부회장 김성철 목사(예승장로교회) △제2부회장 최승찬 장로(영생장로교회) △총무 김영천 목사(필라한마음교회) △부총무 박도성 사관(구세군 필라한인교회) △서기 정희권 목사(브니엘장로교회) △부서기 김병일 목사(포도원교회).

이외에 회계와 감사, 실행위원은 추후 발표하기로 하고 연례행사는 전년도 계획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35회기 회계보고는 총수입

20,392,088달러 총지출 16,746,822달러



필라교협 신규 임원들. 가운데가 새 회장 안문균 목사.



필라목사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필라목사회 새 회장에 김정일 목사

제37회 정기총회, 부회장 최해근 목사 선임

대필라델피아지역목사회(회장 박대문 목사) 제 37회 정기총회가 지난 3일 오전 10시 밀알선교단 강당에서 개최됐다.

1부 경건 예배에서는 박대문 목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본문으로 “섬김의 행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한 후 황준석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2부 회의는 회장 박대문 목사 사회로 시작돼 회무 처리를 한 후 증경회장단이 모여 정, 부 회장을 공천하고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회장 김정일 목사(동신장로교회) △부회장 최해근 목사(몽고메리교회) △총무 이재철 목사(필라델피아선교단장) △서기 임준한 목사(요람대교회) △회계 전동진 목사(체리힐장로교회).

각 분과위원장들은 추후 알리기로 했으며 기타 안건은 전년도 행사에 준해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계보고는 총수입 7,236,53달러, 총지출 7,076,90달러로 보고했다.

한편 이날 분회 회원 안문균 목사(주님의교회)의 번역/출판 서적(“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나?”, 뫼란출판사)에 대한 사인회와 서적 증정식이 있었다.
(기사제공: 필라목사회)

청암크리스찬아카데미 설립24주년 기념 후원골프대회

청암크리스찬아카데미 설립 24주년 기념 후원 골프대회가 지난 11월 5일 클리어뷰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이날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 후 김강산 식당에서 기념식 및 시상식, 만찬, 축하공연과 경품추첨으로 풍성하게 마무리됐다.

정암크리스찬아카데미는 홍원실 박사(1911-1990)를 기념해 그의 제자 홍성실 박사에 의해 1991년 11월 1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청

암학술원, 브니엘신학대학원, 사역센터, 협력교회(청암기념교회, 뉴저지침안교회, 푸른바위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경건 예배는 최해근 목사 사회로 김창만 목사(증경회장)가 민수기 1장 1-4절을 본문으로 “전투적 영성”이란 제목의 설교를 한 후 이대우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뉴욕목사회 부회장선거 경선

오태환 · 김상태 목사...PCA동일교단

대뉴욕지부한인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지난 4일 이메일을 통해 제 44회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회장후보는 현 부회장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담임, 남침례교)로 단독 입후보했다.

부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오태환 목사(뉴욕은총장로교회 담임, PCA), 기호 2번 김상태 목사(뉴욕주님의교회 담임, PCA), 후보등록을 했던 문석호 목사는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44회기 뉴욕목사회 부회장 선거는 경선을 치르게 됐으며 또 동일 교단에서 후보자가 나오는 이번도 생겼다.
목사회 선관위(위원장 송병기 목

사)는 “언론과의 인터뷰, 공식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는 23일(월)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리게 된다.

총회에는 등록된 회원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총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회비 미납자는 선거권이 없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리는 마지막 실행위원회는 12일로 연기됐다.
(유원정 기자)



청암크리스찬아카데미 설립기념 후원골프대회를 마치고 금강산 식당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원기 목사(가운데)가 오재경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 담임 오상연 목사.

하나님의 교회로 지역사회에 오픈

뉴욕베데스다교회, 베이사이드 현당예배

엘머스트에 소재했던 뉴욕베데스다교회가 베이사이드로 교회당을 옮기고 지난 8일 현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원기 목사는 오상연 목사를 새 담임으로 소개하면서, 인수인계를 못 했을 뿐 자신은 담임에서 물러났다고 말하고 70세가 되기 전에 교회사역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오상연 담임목사가 베데스다교회에서 결혼하고 신학공부를 시키고, 목사안수를 받았다”며, “담임목사 결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후회가 되기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세습 아닌 세습이 됐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샀다. 또 영어회중 교역자인 데이빗 김 전도사는 김원기 목사의 친 아들로 “세습이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 뉴욕베데스다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역사회에 오픈하고 또 새 담임을 통해 교협과 목사회 연합활동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당예배는 오상연 목사 인도로 기도 최성훈 목사, 말씀 양승호 목

사, 교회헌당보고 이의창 장로(건축위원장), 헌당기원, 헌당공포, 공로패 증정(김원기 목사가 오재경 원로 장로에게), 축사 한준희 목사(뉴욕교협), 김영환 목사(뉴욕목사회), 이철수 목사, 헌당특송 영어회중, 색소폰연주 이의창 장로, 감사의 말씀 김원기 목사, 축도 안창희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원기 목사의 뒤를 이어 교협회장을 맡았던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는 “다윗의 법궤 퍼레이드”(삼하6:11-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를 예로 들며 “목회의 축복은 첫째, 순종, 둘째 다툼이 없는 것”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욕베데스다교회는 1978년 10월 병원선교를 하던 김원기 전도사를 중심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80년 김원기 목사는 Church of God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교단 가입을 했다. 1990년 세네카 지역에 교회건물을 구입했으며, 1995년 엘머스트 건물로 옮겼다가 지난 7월 현 베이사이드 교회당을 매입하고 26일부터 예배를 드려왔다.
(유원정 기자)

(7면에서 계속)

새번역을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사실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합했다.” 이것이 맞는 번역이다. 그들이 전혀 합했던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도 전혀 합했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전혀 합했다. 떡을 떼는 일에도 전혀 합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혀 합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개역한글의 “전혀”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그것을 ‘오로지’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도 ‘오로지’라는 부사가 ‘기도하다’라는 동사만을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마치 초대교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중요시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오해할 수도 있다. 굳이 ‘오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단어가 이 문장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다 수식하도록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 and in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KJV).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NIV).

초대교인들은 오로지 성전에 모이는 일에 합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합했다. 교제에 합했다.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합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합했다. 결코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 기도에 더 합했던 것이 아니다. 성만찬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했던 것이 아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남은 시간에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만찬, 그리고 기도를 모두 중요시했고, 그 모든 것들이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균형을 잘 이루었다.
이메일: jinhlee1004@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DYNAMICS 다이내믹스
MARIT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침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안,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unja@gmail.com

대상 존크리스토포 상에 월드미션대 박노현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이 미주장로회신학교(총장 이상병 박사) 주관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영예의 존크리스토포 상을 받은 박노현 전도사는 "이번 설교대회에 월드미션대학교 대표로 나오게 됐다. 교수님들의 지도와 판단을 받으며 설교대회를 준비했는데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과 심사위원 등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장)의 사회로 시작된 설교페스티벌은 심사위원 소개가 있었으며 이날 참가한 7개 신학교 학생들을 추천을 통해 설교순서를 정하고 참가자들의 설교로 이어졌다. 설교를 마친 후 심사평과 심사결과 발표, 그리고 시상으로 이어졌

다. 설교페스티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박종기 목사(미주장로신학교 학생처장)의 사회로 시작돼, 변명회 교수(아주사피서픽신학교 한국어석사프로그램 디렉터)가 기도를, 김우중 교수(미주장로신학교 ESL & 원격교육 디렉터)가 성경 봉독했으며 민종기 목사(중현선교회 담임)가 말씀을, 그리고 김경진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수상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존크리스토포상(대상): 박노현(월드미션대학교) △설교교수상: 황원익(베데스다대학교) △주해상: 김경식(주제개혁대학교) △스카뮤니케이션상: 김영일(미주장로신학교) △장려상: 김영임(그레이스미션 대학교) 서정일(에반젤리아복음대학교), 홍락기(미성대학교),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정운두 목사/지휘 서문복, 반주 송지영) 제8회 정기연주회가 29일(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특별출연으로 소프라노 박경숙, 바리톤 박재용, 조이플 남성선교 중창단이 공연한다.

▲문의: (818)931-1087

LA복음연합감리교회 '특별한 동행'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가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 김원기 목사(전 서부지역 선교감리사), 김용민 목사(서부지역 선교코디네이터), 이창순 목사(전 월서연합감리교회 담임)를 초빙, 말씀과 함께 하는 '특별한 동행'을 실시한다. 집회시간은 금, 토 저녁 7시, 주일 오전 11. 한편 12월 5일(토)에는 이웃초청 음악회, 12일(토) 선교바자회도 갖는다.

▲문의: (323)641-0631

미주크리스찬문협 주최 김수영 시인 출판기념회

미주크리스찬문협 회장 정지훈 목사가 주최한 김수영 시인의 '바람이 구름아 달아' 출판기념회가 6일 오후 6시 만리장성에서 개최됐다.

정지훈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흥현호 목사(남가주 꿈이있는교회)가 기도했으며 김숙영 교수(대한신학교)가 특송을 했다.

이어 김만홍 목사(캐나다 ICM교회)의 설교문을 사회자가 대독했으며 박용기 목사(부모님선교회 회장)가 축도했다.

김학형 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2부 순서는 정지훈 회장이 인사말을 최선호 목사가 축사를 그리고 배재웅 회장(재미시인협회)이



김수영 시인의 '바람이 구름아 달아'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격려사를 흥중주 시인이 시평을 했다. 이어 축하패 증정의 시간과 김숙영 교수의 특송 시간을 가진 후 김수영 시인이 감사인사를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고향의 봄'을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헤븐스밴드, 존추, 방유실, 드림시퀀스 출연 터렛 마당콘서트 성황

터렛(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마당콘서트'가 7일 오후 6시30분 한인타운내 마당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헤븐스밴드, 케이팝스타 시즌4 탑10 진출자 존추, 여성듀오 지도우의 방유실, 그리고 그룹 드림시퀀스가 출연해 늦가을 토요일 저녁을 아름다운 선율로 적셨다.

이번 콘서트는 80-90년대 팝과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마당광장에 몰려든 관객들이 출연자들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공연자들의 공연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특히 드림시퀀스의 보컬 양지훈 씨가 마룬파이브의 '선데이 모닝'을 부를 때 애드립 부분에 '선데이



모닝 다 같이 교회 감사대라는 가사를 넣어 부를 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터렛 관계자는 "모처럼 파킹랏을 벗어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마당광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출연자들과 관객들과 잘 어울리는 듯 해 기획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터렛트는 2016년부터 기존의 파킹랏 콘서트와 더불어 마당콘서트를 분기별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울림선교합창단 제 9회 정기연주회 성료 공연 후 감사장 및 선교비 전달

울림선교합창단(총지휘 이우진, 단장 강천순) 제 9회 정기연주회가 7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막을 올렸다.

스카트사와 미렐리의 사회로 시작된 연주회는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교회 담임) 기도가 있는 뒤 양국 국가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기립해 양 국가를 불렀다.

이어 합창과 중창, 독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울림선교합창단원들은 '엄마야 누나야', '자유와 평화'를 부른 뒤 청중들과 함께 '만남'을 합창했으며 중창단원들은 '마음의 눈물', '그대가 꽃이라면'을 들려주기도 했다.

프로들이 아닌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울림합창단은 이우진 총지휘자의 지도아래 매주 연습시간을 갖고 음악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림픽 청소년 미래 사관생도 프로그램을 운영, 울림격정찰서를 돕고 있다.

특히 이날 연주회를 통해 울림선교회를 적극 협력해준 황은영 목사, 오세준 원장, 이찬주 박사, 김경희 교수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이성희 목사(예수만남교회), 서정주 선교사(캄보디아), 박한길 선교사(C국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전달했다.

(이성자 기자)

이민사회에 새 활력 불어넣으려... 남가주한인음악가협 주최 2015 코랄페스티벌 성황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 권사)가 주최한 2015 코랄페스티벌이 8일 오후 6시 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권상욱 전도사(은혜한인교회)와 김숙영 사모의 사회로 김경진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된 페스티벌은 새생명비전교회, 정신여고동문코러스, 오렌지선교합창단, 베텔한인교

회, 한인기독교합창단, LA팝스코랄,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찬양대와 합창단이 대거 출연했다.

이날 오성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노력하고 풍성하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찬양과 합창의 하모니를 이민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기 위

'생명 살리기 아프리카 우물파기 후원' 캠페인 10주년 정기연주회 성황

캠코랄(Korean American Master Choral) 단장 겸 지휘 이수정 집사) 제10회 정기연주회가 '생명 살리기 아프리카 우물파기 후원음악회'로 8일 오후 7시 뉴라이프 커뮤니티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연주회에서 이수정 집사는 "10년간 캠코랄이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며 "때로는 그만 두고 싶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겨야 했다. 오늘 연주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티브방호 라팔마 시의원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Domine Jesu Christe', '자비로운 주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 등을 불렀다. 그리고 옥스포드 어드밴스드 걸스 앙상블과 함께 합창하는 시간을 가져 이날 모인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재즈보컬리스트 이진미 집사, 바리톤 장상근, 보컬리스트 허훈이 찬조 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2015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코랄페스티벌이 나성영락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LA팝스 코랄이 찬양하는 모습

하여 코랄페스티벌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하며, "오늘 페스티벌에 참가한 모든 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강경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WM에 예배: 오후 1:3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201)342-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zyang.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님: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o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9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33-003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교단별 법률자문단 구성…이단 문제 공동 대응”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단 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단문제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단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호근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더 이상 이단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각 교단에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공격할 것은 공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예장합동뿐 아니라 각 교단과 교회에서 힘을 모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이단문제가 발생하면 8개 교단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교단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단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교단은 반사회적 중

교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법률자문단을 통해 자문할 계획이다.

한국교회 전체가 대처해야 할 이단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률자문단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박형택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은 “법적 소송의 대상은 이단 교주뿐 아니라 이단 종교집단도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최성광(예장통합) 최원국(예장고신) 김정만(예장대신) 이종영(기감) 한병국(기침) 이단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출석하지 못했지만 이단 대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기 연석회의는 내년 2월 개최된다.

“동성애가 죄라 말하면 처벌 받을 수도”… 차별금지법대책기독시민연대, 국회서 ‘시민토론회’

차별금지법대책기독시민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과 남성 간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확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해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분류한다”면서 “법안대로라면 기독교인이 ‘동성애가 죄’라고 발언했을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차별행위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반사회적 종교집단 신도들이 처벌을 받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법원은 차별행위 당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피해배상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비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정상적 가족형태로 인정하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전조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원평 부산대 교수는 “어떤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하려면 그

집단의 성인 1명당 1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인공수정을 통한 레즈비언의 출산을 제외하고)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그 비율이 유지돼야 하지만 연례히 높아질수록 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여러 과학적 근거를 보더라도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아니며 교육 문화 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기독교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정상적 가족형태로 인정하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전조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에이즈 환자의 평생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남성간 성접촉으로 에이즈 감염자가수가 지금처럼 계속 급증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10년 안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교자는 일방적인 역사 기록이 빠뜨린 힘없는 사람들의 생생한 역사를 찾는 데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중이 “설교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말씀만 전달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박 교수는 “성경과 설교자의 주관 중 무엇이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라며 “설교자의 주관이나 지식·철학 등은 본문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인주 종교개혁500주년위원장은 “종교개혁과 관련해 강의 강연 세미나 심포지엄 콘퍼런스 등 다양한 모임이 있었지만 일방적 소통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더 진실한 담론이 이어지고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목회실천협의회는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5-6회 정도 톨로키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개혁의 잣대를 성경에서 찾는다”면서 “그러나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설교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사람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메신저(전달자)”라며 “하나님의 형편과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청중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시대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설교자도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진리의 기준은 교회 아닌 성경…다시 성경으로” 생명목회실천협 주최 ‘종교개혁 500주년 톨로키움’

종교개혁 500주년(2017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생명목회실천협의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연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생명목회 톨로키움’을 열었다. 생명목회실천협의회 회장 진희근 목사(승리교회)는 “종교개혁의 원동력’(당후:3·13-17)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면죄부 판매’ 같은 얼토당토않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교회가 진리’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진리의 기준은 교리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현 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

성경 보급 120년…대한성서공회 전시회, 학술 심포지엄 등 기념행사 풍성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정동길 정동제일교회(송기성 목사)에서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오후 1시30분 기념예배, 오후 3시30분-5시30분 학술 심포지엄, 오전 9시-오후 5시 성서전시회를 개최한다.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 창립해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국내에 성서를 보급했다. 1979년부터는 자립해 해외에 성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1억6000만부의

성서를 해외에 보급했고 해마다 240여 언어로 약 700만부의 성서를 제작해 120여국에 보내고 있다. 기념예배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비롯해 스코틀랜드·일본·탄자니아 성서공회 총무를 초청했다. 학술 심포지엄에선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회로 박동현 전 장로회신학대 교수가 ‘한국교회에서 개혁 성경이 갖는 의의-개혁 성경의 재발견’을, 옥성득 미국 UCLA 교수가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

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성서전시회에선 대한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한글 고본 성서 원본을 공개한다. 최초의 우리말 단편인 ‘예수성고 누가복음전서’(1882년)와 최초의 우리말 신약 성서인 ‘예수성고전서’(1887년) ‘마태복음’(1895년) ‘창세기’(1906년) ‘이사야’(1908년) 등 초기 단편들, 최초의 국내 공인역 ‘신약전서’(1900년), 최초의 우리말 완역 ‘성경전서’(1911년) 등이 전시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성경 개혁’(1938년 영인본), 신간 ‘성서 속의 식물들’ 기념 논문집 ‘전시 자료 해설집’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가나안 성도’ 100만명 시대…새 신앙공동체 나올 때 IVP, 기운실, 한국교회탐구센터 공동 출간기념 북토크서 주장

이들은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 출석 기간도 평균 14년이 넘고 90%가 교회 직분을 맡았다. 3분의 2는 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요즘 한국교회의 ‘새로운 그리스도’로 분류되는 ‘가나안 성도(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을 한국교회에 긍정적으로 보고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탐구센터가 9일 개최한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IVP) 출간 기념 북토크 행사에서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3년 31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2010-2012년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내용을 정리했다. 가나안 성도 100만명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13년 실시한 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

“성령 임재 구하며 하나님의 실재 경험하는 시간” 한기총 ‘제1차 성령충만대성회’ 개막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9일 경기도 파주 동원로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에서 ‘제1차 한기총 성령충만대성회’를 개막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대성회는 ‘성도들의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화’를 목표로 하루 네 차례 예배를 드린다. 오전 6시 ‘경건의 시간’을 시작으로 오전 10시30분 ‘신유의 시간’, 오후 2시30분 ‘성령대망의 시간’, 오후 7시 ‘문제해결의 시간’까

지 순서마다 교계지도자들이 강사로 나선다. 9일에는 이병순(천국교회) 유덕남(성일교회) 엄바울(새비전교회) 엄정목(엘림교회) 목사가 충만대성회’를 개막했다.

10일에는 김홍기(비전교회) 강영선(일산순복음영산교회) 이강평(예수사랑교회) 김탁기(수원그리스도의교회)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11일에는 안이영(영화교회) 엄신형(중흥교회) 길자연(왕성교회 원로) 박중선(한마음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12일에는 정순균(근빛교

“한국내 이슬람교, 치밀한 포교전략 진행” 기독교학술원 ‘이슬람 대책과 한국교회’ 영성포럼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환 박사)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이슬람 대책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제24회 영성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이슬람교를 명확히 파악해 전략적 선교방법을 마련하고 무슬림을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의 선교전략에 대해 발제한 장훈태 백석대 교수는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이슬람의 영향권에 진입하게 된 것은 이슬람교의 ‘다와 정쟁’ 때문”이라며 “다와는 사람들의 개종을 이끌어내는 활발한 이슬람교의 포교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슬람교는 한국에서 대학 캠퍼스를 통한 이슬람화 추진, 한국인과의 결혼, 학술활동 지원과 미디어를 통한 이슬람 홍보 등 치밀하게 선교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슬람교는 한국 기업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 할랄식품 엑스포 개최와 이에 대한

홍보활동 등 한국에서 이슬람 붐을 조성하고 법률 경제 출판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슬람의 다와 정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슬람의 역사와 문학, 문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전쟁 등 한국사회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이슬람교가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사회에서 이슬람교의 정착은 기독교의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심방사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한국교회가 심방목회와 가정방문 전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던 것을 다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국교회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이슬람의 폭력과 테러, 이슬람 여성의 인권,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결혼, 비이슬람 국가들에서 무슬림들의 통합, 현대 이슬람

세대별 전도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장합동 전도정책 포럼… 600여명 목회자 등 참석

‘총동원 주일’ ‘새 가족 초청 잔치’ ‘노방 전도’ 등 예나 지금이나 교회들은 전도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신앙의 결실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효과적인 복음 전달의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보는 포럼이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총회전도정책포럼이 ‘전도설교(복음제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600여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설명에 나선 예장합동 국내 전도국장 전석복 목사는 “전도설교

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자 불신자 구원의 핵심이며 성도들께겐 복음제시의 모범이 된다”고 말했다.

박현신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강의에서 “갈렙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설교가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한다고 강조했다”며 “구원의 수단이 자 천국의 열쇠인 복음적 전도설교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열린교회 목사는 복음적 전도설교의 요소들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복음적 전도설교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답변, 십자가 부활의 중요성이 담긴 메시지, 회개를 통한 회심의 당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포럼에서는 세대별 특성에 맞는 전도설교 방법도 공개됐다. 홍승영

“목회자 사례비 양극화…교단별 호봉제 도입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세미나 개최, 재정운용 투명건강성 제고 도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 태복음’(1895년) ‘창세기’(1906년) ‘이사야’(1908년) 등 초기 단편들, 최초의 국내 공인역 ‘신약전서’(1900년), 최초의 우리말 완역 ‘성경전서’(1911년) 등이 전시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성경 개혁’(1938년 영인본), 신간 ‘성서 속의 식물들’ 기념 논문집 ‘전시 자료 해설집’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 것이다.

이날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은혜와선물교회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저자 정 교수와 김기석 청파감리교회 목사, 김인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대담자로 나와 1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이 넘는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참석자들 중엔 신학교 교수를 비롯해 청년 대학생 등도 많아 이미 ‘현상’이 된 가나안 성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신학대 교수는 “목회자 사례비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별로 천차만별이며 이로 인해 목회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에 비해 교회 숫자가 턱없이 적은 것 역시 큰 문제”라며 “신학대 인원조정 등 교단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울은 선교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복음전파에 두고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사례수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이여지지 않을 때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다”며 “이는 물질 문제 때문에 복음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목회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교단별 호봉제’를 제안했다.

회) 함동근(순복음한성교회) 배진구(신안산교회) 김원남(낙원교회) 목사가 설교한다. 13일에는 김창수(산돌교회) 이태희(성복교회) 정학채(영광교회) 황덕광(성락장로교회)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박준헌(예수생명교회) 목사가 금요철야예배를 인도한다.

14일에는 정바울(은혜성서교회) 한정수(일문교회) 이광훈(할렘루아선교회) 이용운(천안 갈보리교회) 목사가 집회를 인도한다.

한기총 관계자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 얼굴 등을 명확히 파악해 이에 따른 선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HIM선교회 대표 이만석 선교사는 ‘국내 이슬람 선교’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선교사는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들에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전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 등을 꼽았다. 그는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잔인한 무슬림들의 테러 소식 때문”이라며 “그러나 두려움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무슬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이슬람 학자들은 ‘타가야’라는 교리가 있어서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 쿠란을 왜곡시킨다”며 “사건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이슬람 자료를 통해 이슬람의 정체를 파악해야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장지교회) 김정윤(빛트인교회) 권기웅(원남교회) 목사는 각각 어린이·청소년·청년에게 적합한 전도설교에 대해 강연했다. 홍 목사는 “말각주기가 짧은 어린이에게는 설교의 빈도를 높이고 강조점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받아들이 복음을 오래 기억한다”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청소년 전도는 기존 교회에 속하는 또래 청소년들을 통한 관계전도에 의해 대부분 이뤄진다”며 “메시지에 또래 사이에서 회자될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집회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목사는 “청년들 전도설교에는 현실에 대한 공감도 필수”라며 “취업과 결혼 등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복음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사례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해 합리적 체계를 세울 수 있다”며 “목회기간과 교회재정, 학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재무와 회계법을 기반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 최호운(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과 절차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정 집행 과정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목회자가 당초 교회가 책정한 사례비를 초과해 집행한 금액은 목회자 개인의 지출인데 이를 교회의 공적인 지출에 포함시킨다면 성도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200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영연연구원 등이 창립한 단체다.



고난의 신학: 고통에 대한 묵상 (1)

이승현 박사
(ITS 총장)



1. 고통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은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이다.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동안 믿는 자들이 필요한 인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의 예를 들고 있다(약5:11). 인내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래서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무엇아래서 머무른다는 말인가? 고난의 짐과 스트레스 아래서, 아픔과 슬픔이라는 큰 바위 아래서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다림을 인내라고 볼 수 있겠다.

고난을 당할 때만큼 나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시간도 없다. 나 자신의 무기력함은 종종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그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주위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아래 이러한 고난을 야기시킨 사회악 (social evil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이들은 고난을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고통을 내면화한다. 그러한 고통의 내면화는 절망과 우울증으로 나타나며 그들은 이로부터의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현실도피를 추구한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믿음은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속한다는 결론을 낳는다. 사도 야고보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나(약1:17) 고통은 선분만 아니라 재앙*도 인간들에게 오며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한다고 주장한다(약2:10). 여기에서 고통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으로 분명히 말하는데 악의 출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것은 과연 악, 재앙 또는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오는가라는 신정론의 문제와 직결되며 고통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에게 탓하려는 충동을 이기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원망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고통의 아내의 원망을 탓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통과 같이 그 여인의 처절한 절망의 소리를 단순한 어리석은 부르짖음으로 여기며 그 여인을

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같이 들렸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표출되는 "어리석음"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큰 인내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들 중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이다.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자주 언급되며 시편의 저자들도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시6:1). 수레에 실려 가는 법

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곁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옷사에 대한 이야기(삼하6장)를 들으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설친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 법궤를 멀리했던 것같이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구약성경을 멀리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이며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신학적 딜레마이다. 고통이 있어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과 그의 아내에게 온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고통의 인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고통 가운데 새어나오는 신음은? 절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완전함 앞에서 고통의 아내의

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같이 들렸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표출되는 "어리석음"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큰 인내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들 중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이다.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자주 언급되며 시편의 저자들도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시6:1). 수레에 실려 가는 법

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곁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옷사에 대한 이야기(삼하6장)를 들으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설친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 법궤를 멀리했던 것같이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구약성경을 멀리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이며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신학적 딜레마이다. 고통이 있어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과 그의 아내에게 온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고통의 인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고통 가운데 새어나오는 신음은? 절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완전함 앞에서 고통의 아내의

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곁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옷사에 대한 이야기(삼하6장)를 들으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설친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 법궤를 멀리했던 것같이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구약성경을 멀리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이며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신학적 딜레마이다. 고통이 있어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과 그의 아내에게 온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고통의 인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고통 가운데 새어나오는 신음은? 절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완전함 앞에서 고통의 아내의

고난 가운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내의 한계성 보여줘 인간의 한계 덮을 수 있는 인애와 인내의 하나님 알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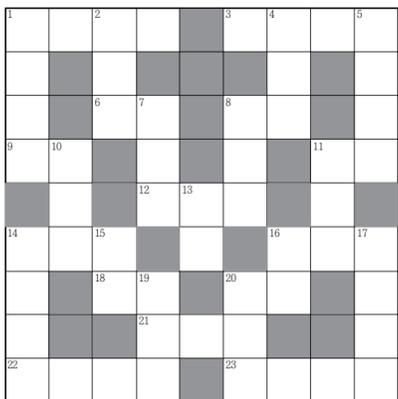
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같이 들렸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표출되는 "어리석음"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큰 인내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들 중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이다.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자주 언급되며 시편의 저자들도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시6:1). 수레에 실려 가는 법

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곁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옷사에 대한 이야기(삼하6장)를 들으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설친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 법궤를 멀리했던 것같이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구약성경을 멀리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이며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신학적 딜레마이다. 고통이 있어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과 그의 아내에게 온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고통의 인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고통 가운데 새어나오는 신음은? 절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완전함 앞에서 고통의 아내의

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곁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옷사에 대한 이야기(삼하6장)를 들으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설친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 법궤를 멀리했던 것같이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구약성경을 멀리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이며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신학적 딜레마이다. 고통이 있어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과 그의 아내에게 온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고통의 인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고통 가운데 새어나오는 신음은? 절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완전함 앞에서 고통의 아내의

십자말 • Cross Word (10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여호와를 찬양하라(시편 곳곳에).
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마1:23).
6. 소발의 자녀(창36:23).
8. 독이 있는 뱀(창49:27).
9. 다윗의 종신의 한 사람으로 서기만이 되어 공문서의 전부를 관장했다(삼하20:25).
11. 아람의 침 실바의 소생이다(창30:13).
12.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을 보살피는 사람(출3:7).
14. 이데리 반도 서해안에 있는 한 개항장.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한 주간 유한 곳(행28:13).
16. 일명 맛사. 신 광야 가데스바네아 부근에 있다. 모세, 반석, 물과 유관(민20:13).
18. 존재를 알리지 않음. 업신여김(시73:20).
20. 일을 처리해 나가는 죄와 솜씨(신32:27).
21. 여호수아가 공취한 가나안의 31왕 중 한 사람의 땅(수12:21).
22. 리브가가 약대를 타고 갈 때에 이삭이 이곳에 와서 맞이하였다(창24:62).
23. 몹시 가난하고도 근색하다(막12:44).

<세로 푸는 열쇠>

1. 예루살렘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느3:12).
2. 안디옥교회에 있던 선지자 혹은 교사로, 구레네 사람(행13:1).
4. 요술쟁이(사8:19).
5. 아브라함의 총부. 다메섹 사람(창15:2).
7. 남자이건 여자이건(출21:4).
8. 홀로 태어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요1:14).
10.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여로 왕의 왕비. 패위됨(에1:9).
11. 속으로 통하는 구멍의 어귀. 입(겔38:4).
13. 보통보다 뛰어난게 힘이 센 사람. 장사(삿3:29).
14. 요셉의 아내 아스낫의 아버지(창41:45).
15. 새나 짐승을 잡는데 쓰는 올가미(출23:33).
16.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셋째 아들(창25:2).
17. 하반의 장자(에9:7).
19. 베냐민지와 게라의 아들인데, 사울 왕에게 충성. 다윗을 저주하였다(삼하16:5).
20. 물을 흘려보내는 시설의 입구(사36:2).

십자말 정답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제25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제25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OC 교협 정기총회 (2014.11.20)
2. 신규회장단 이취임감사예배 (2014.12.7)
3. 샌크라마트 주의회 신년기도회 (영감의원초청)(2015.1.11)
4. 남가주지역 연합기도성회(2015.1.23)
5. 신년하례회와 작은음악회 (2015.1.26)
6. 오렌지카운티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2015.2.14)
7. 삼일절기념 통일 소망기도회(2015.3.1)
8. 7인7색 목양콘서트 (2015.3.12)
9. OC 부활주일 연합예배 (2015.4.5)
10. OC영적 대각성집회 및 목회자세미나 (2015.4.17-19)
11.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2015.5.7)
12. 요한계시록 세미나(2015.5.12)
13. 제6회 사모블레시나잇 (2015.6.11)
14. 타민족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2015.7.11)
15. 70주년 오렌지카운티 연합 광복절행사 (2015.8.15)
16. OC원로목사님 부부 초청 일일수련회 (2015.8.27)
17. OC 차세대리더 장학금 수여식(62명)(2015.10.3)

OC 교협 조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회: 임영민, 총무이사:민경엽 이사: 박용덕 박학선 신원규 양근호 양문국 윤성원 이종은 정영수 한기홍
 후원이사회: 이법식 이사: 김명균 김영수 이준영 이종열 전준홍 박광원
 회장: 김기동 부회장: 수석: 민승기 기획: 송규식 대외: 윤덕근 영성: 이호우 목회: 이서 신학: 남성수
 교육: 심상은 평신도: 율우경
 임원: 총무:신현철 협동총무:김경선 서기: 박재만 회계: 서준석 감사: 고현중
 분과위원장: 신학: 오아론 이민복회: 김만태 장학: 김도영 교육: 김익현 여성목회: 이선자 선교: 정예지 전도:박용덕
 음악: 김윤식 홍보:이태중 방송: 신 중 문화:유건형 복지: 남상국 친교:서양훈 평신도 이동양 여성: 켈디유
 구제: 최정자 차세대: 앤드류김 이영이 청년선교: 더글라스김 실버사역: 주도동 노정도 의료선교: 서문준
 캠퍼스: 조형수 다문화: 테드워드 IT 분과: 안준현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갈보리새생명교회 (민승기목사 담임)
 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15-9191



회장 김기동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회장: 김기동 목사(714)262-1428 총무:신현철 목사(714)321-1891
서기: 박재만 목사 (213)255-0296

“감사의 기도”가 부활돼야한다!

2015, 추수감사절 맞아 감사충만한 사람 되기 위한 감사기도 소개

우리는 과연 예배드릴 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울먹일 때가 있는가? 그리고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있는가?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식민지로 이주한 펠그림 파더스들이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바로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감격하며, 울먹이는 감사로부터 시작됐다.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빛이 이자가 붙어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에도 시달렸다.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으며, 완두콩 농사와 보리농사도 망쳤다. 옥수수도 20에이커의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졌으며, 날씨도 좋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인디언들의 항쟁에서도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런 미국 사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다. 노만 락웰(Norman Rockwell)은 미국 현대 사회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쉬운 그림으로 표현해낸 미국의 대표적 인 풍속화가 있다. 그는 '식사기도'(Saying Grace)라는 여행 중에 식당에 들러 식사 기도를 하는 할머니와 손자의 그림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잃어버린 미국 사회의 단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을 동시에 그려내고 있다.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는 모르지만, 낯선 사람과 같은 식탁에



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고통의 길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수많은 눈물이 바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도독을 맞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그곳에 앉아서 네 가지 감사기도를 했다. 첫째는 전에 도둑맞지 않은 것을 감사, 둘째, 생명을 도둑맞지 않은 것을 감사, 셋째, 아직 남은 것이 있음을 감사, 넷째, 내가 도둑 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 매마른 마음은 없는지, 가시에 대해서 불평만 하지는 않았는지, 현재의 고난에 집중해 더 큰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 계수해 참된 감사로 예배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삶의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 고통의 길 통해서 영광 얻어 어떤 일에도 항상 감사 넘치는 삶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

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식당에서 그리 대접받지는 못한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기도하는 그들을 지켜보는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고(50년대를 주름잡던 제임스 딘 스타일),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기도하는 두 사람을 쳐다본다.

히 드러야할 감사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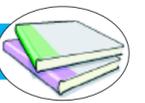
그런데 부끄러움을 참고 할머니를 따라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린소년. 락웰은 이 소년을 화면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희망은 바로 이런 감사를 배운 소년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맹인 설교

자 조지 매티슨은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나의 생애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가시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미를 위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도 감

수도 있다. 마치 청교도들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부활하는 그러한 '2015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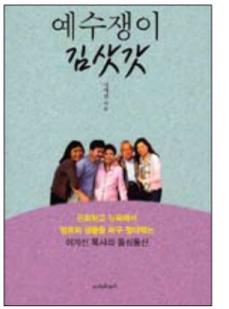
책 소개



“예수쟁이 김삿갓”

지은이 이계선 목사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예수쟁이 김삿갓”이 이계선 목사의 3번째 저서로 출간됐다(“떨고만 알라바마”, “대형교회야 망해야 한국교회야 산다”에 이어). 출판기념잔치에 참석한 김해중 목사(전 UMC감독)가 “판에 박힌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두려워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글”이라며, “예수님도 ‘허허 그녀석’하고 웃으실 거”라는 평을 한 것처럼 “예수쟁이 김삿갓”은 은퇴 후 돌싱(따라커웨이 소재)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목사의 삶을 진솔하게 담았다.



돌싱은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있는 곳인데, 이계선 목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노인아파트를 버리고 더럽고 위험한 시영아파트에 들어갔다. 그 이유에 대해 10평씩 떼어주는 조각농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돌싱에서 이 목사가 친구들에게,

은퇴 목사의 솔직담백하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

혹은 인터넷언론을 통해 보내는 칼럼 ‘돌싱통신’을 모아놓은 책이다.

책은 1. 은퇴, 2. 부부, 3. 가족, 4. 돌싱, 5. 교회, 6. 고국, 7. 투병, 8. 문화, 9. 소설 등 9장으로 나눠 각 장마다 9개에서 3개의 칼럼을 싣고 마지막 장 소설에는 저자의 단편소설 “하얀갈대”와 “글쟁이 사람들”을 실었다.

지난 출판감사잔치에서 뉴욕일보 송의용 편집국장은 이계선 목사에게 대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표현하며 이 목사의 포용력과 인간미, 긍정적 시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뉴스로 노장현 대표역시 이 목사의 “따뜻함”에 대해 말하면서 “목사님의 글이 비틀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날카로움과 해학은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목사님의 문학성은 솔직담백한 따뜻함”이라고 말했다.

“은퇴하고 뉴욕에서 영혼의 샘물을 마구 팔아먹는”이라는 부제가 붙은 “예수쟁이 김삿갓”은 미국내 한국서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총 284페이지, 출판사 아레오라고.
▲저자 이메일: 62859599@hanmail.net

이계선 목사의 책 “예수쟁이 김삿갓” 출판기념잔치

뉴욕에 거주하는 돌싱통신의 필자 등촌 이계선 목사의 책 “예수쟁이 김삿갓” 출판기념잔치가 지난달 3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LA와 워싱턴DC 등 각처에서 이계선 목사의 지인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멀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판잔치 축하 시를 보내오기도 했다.

특히 이날 자녀 삼남매가 조영남의 노래 “내 고향 충청도”를 “내 고향 돌싱”으로 개사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 참석자들의 눈시

울을 적시기도 했다.

유상열 목사의 ‘서머타임’ 색소폰 연주와 김해중 목사의 개회기도, “향수” 합창, 오인동 박사, 신필영 선생, 하운 박사, 이상철 선생, 한재홍 목사, 김영수 선생, 조의호 목사 등 각계 각층의 지인들이 축사와 서평 축시 등을 전했으며 강창구 선생의 북, 소프라노 서로마의 “사랑이여”, 박평일 선생의 “기다리는 마음” 등을 불렀다.

또 송의용 뉴욕일보 편집국장도 노장현 뉴스로 대표의 짧은 강연이 있었으며 노사연의 “만남”을 합창

함으로 모든 순서를 끝냈다.

2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이계선 목사는 이날 전혀 환자 같지 않은 모습으로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비좁은 좌석에 넘쳐 앉은 지인들을 반겼다.

한편 다음날인 11월 1일 낮에는 이계선 목사가 거주하는 ‘돌싱’(따라커웨이)에 10여명이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돌싱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원정 기자)



마지막 만남을 열창하는 은범씨. 참석자들과 이계선 목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 옆이 둘째딸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www.pecpc.com

제8회 정기 연주회



단장 정운두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



반주 엘렌박

특별출연



소프라노 박경숙 시모



바리톤 박재웅 목사



알토 임경애



조이플 남성선교 중창단



지휘 서문옥 목사



반주 송지영

2015년 11월 29일 (주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323)931-1087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문의: 강평근 목사 Tel: (818) 468-8672 · 무료입장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4. 사모의 사명가꾸기 (4)

지난 호에 이어서 다윗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실감있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은 현재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모들의 모임 속에는 구구절절 이런 간증들로 쌓여있습니다.

사모의 지원자이든 징집자이든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뚫 수 없는 길이 사모의 길입니다.

사모가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실력으로 시역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겠으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속 들어 하신 것입니다. 사모의 길을 수십년 걸어오면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사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저력을 맛볼 수 있을 때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절실히 알게 되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행복이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명령과 규례를 말한다고 하신 말씀 중에 행복이란 의미는 히브리어 '토부'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평강, 기쁨,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순간에는 가

장 행복해 하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지으신 목적도 인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이고 그 에덴동산이 무너질 때도 결심한 것은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인간을 통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궁극적 행복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될 때이고 이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을 위해 아들을 버리시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질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도저히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마침내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사건이기에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수차례 걸쳐서 인류를 멸망하고 싶었으나 다시 회복을 시키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모에게 사모는 당당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행복을 맛아가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 사모는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게임도 되지 않는 적군 앞에서, 그는 오직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몰뚝들을 던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곳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경험도 없고 복장도 어울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평소애 자기가 연습해 놓은 몰뚝 돌리는 기술 하나 갖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읍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용기와 담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팡이만 바라보고 잡들었던 양들을 돌보면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그의 습관 속에, 뺨 속에 배여 있었던 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였습니까.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성숙한 신자의 길(요일2:12-14)찬271장

사도 요한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성숙으로 성장하도록 거쳐야 할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단계는 죄사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창조자를 인격적으로 아는 확인입니다. 셋째 단계는 이미 약한 자를 이긴 승리의 확인입니다. 이 삼중확인 성숙한 신앙의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반복해서 성숙한 신앙의 요소들을 더 분명히 할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7덕의 단계

곧, 믿음, 덕, 지식, 경건, 형제애, 인내, 사랑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베후1:5-7). 참된 신자는 죄사함 곧, 구속받음에 대한 확인을 가지고 창세 전에 계신 삼위하나님에 관한 살 깊은 지식을 가지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를 말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숙한 신자로 살아갑니다.

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요일2:15-17)찬412장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마침내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다. 이는 세상을 떠날 수 없고 그 발판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첫째,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즉, 성경을 진실히 믿고 착념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는 것으로 표현한 성경은 안목의

뿌리를 성령의 소욕에 두게 하라고 합니다. 하와와 그의 마음이 자기 욕망에 머물렀기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셋째, 이 생의 자랑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랑하려는 충동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제일 큰 죄가 자기자랑 곧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 길로 갑시다.

수 적그리스도란?(요일2:18-23)찬247장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종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그 특징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거짓예수로, 바울은 불법의 사람으로 표현한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사도요한은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흉내를 냈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리스도와 맞서는 인물이 나타날 것을 말했습니다. 둘째, 그는 거짓 교훈을 통해 일합니다. 헬라철학의 영향으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올 수가 없다는 기독교 이단을 가리킵니다(22). 셋째, 그는 교회를 이탈하는 자입니다(19).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붙어있는 교회를 경시하고 떠나는 자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탐욕에 빠져 육위주로 나가는 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행2:42-47). 오직 성경에 착념하는 자만이 이 시대를 이깁니다.

목 기름부음을 따르자(요일2:24-29)찬177장

요한이 본 기름부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기능을 하게 하는 분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복음을 듣도록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연합이 곧 영생의 삶입니다. 둘째,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임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도는 기름부음이란 현재분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임재하심으로 신자는 새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자의 갈 길을 진히 지도하십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일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이는 성령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흔탁한 세상에 기름부음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금 죄를 이기는 길(요일3:1-6)찬213장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인류는 죄를 해결함으로써 회복됩니다. 본문의 주제대로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십자가에 비취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이깁니다(1-2). 그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아는 사랑을 세상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장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둘째, 산 소

망을 가짐으로 이깁니다(3). 이런 소망이 우리로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을 알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서 죄를 이깁니다(3-6).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함인 줄 알고 그와의 교제를 힘쓸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많은 세상에서 이 길로 갑시다.

토 하나님께 난 자의 특권(요일3:7-12)찬509장

예수에 대한 믿음은 지식을 넘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태어납니다(요1:13).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생명이 죄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충실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하며 은혜로 뚬을 시인해

야 합니다. 둘째, 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11).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의 맛을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신자 간의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셋째,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악한 세상의 정욕에서 자유를 얻으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권을 누립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뺨속에 새긴 목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할 때

지금 시편을 기록하는 당시의 상황도 죽을 만큼이나 어렵고 힘이 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실재입니다. 공중누각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재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양들처럼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쫓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낮에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해 본 다윗은 자신에게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안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양들은 워낙 의심이 많은 동물들이라 목자가 밤에도 지켜 주지만 불안해서 잠을 못자는 양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들을 위해서 문고리에다 낮에 늘 보여주었던 지팡이를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양들은 이것을 보면서 스디어 마음을 놓고 잠이 든다고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나가라는 소식을 접하는 목회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 순간 감성적인 사모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지요. 물론 목사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어온 성도들이 아무 소식이 없이는 교회를 옮기는 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흔히 옵니다. 안식년을 맞이한 기쁨도 순간적이고 지원금이 끊어질 때, 믿었던 건장에 갑작스런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 누가 그 자리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인간의 연합함을 익히 잘 알았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등장시킵니다. 양들은 불안할 때마다 문고리에 걸쳐 있는 지팡이를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드는 양들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을 적으나 의지하는 내주를 더욱 의지 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을 부르면서 사모들은 앞드립니다. 사모들의 생애는 이런 찬송 없이 내 힘으로 견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영양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11:20 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2부: 오전 11:20</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등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베델한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2:00(청년)</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미주영광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세계성당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6:00</p>	<p>은혜한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11:00(청년)</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영양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pc.org Tel: 310-370-52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찌어다 (시 105:1)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323)913-449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0691 Fax.(562)691-0698</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2779 Fax.(213)481-3761</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714)772-0777</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2295 Fax.(718)762-4693</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p> <p>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p> <p>Tel. (718)361-9199 Fax.(718)361-9433</p>	<p>뉴욕벨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7987 Fax.(516)883-1961</p>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p> <p>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p>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p> <p>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p> <p>Tel. (718)639-3021 Fax.(718)507-6376</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9194 Fax.(201)943-5204</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702)257-9191</p>	<p>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p> <p>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p> <p>Tel. (702)749-9909 Fax. (702)478-7224</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2171 Fax.(718)961-3631</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0691 Fax.(610)222-0692</p>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2202 Fax(213)381-2535</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p> <p>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Tel. (410)461-1235 Fax.(410)461-6823</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1512 Fax.(215)945-2095</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4579 Fax.(508)435-5467</p>	<p>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p> <p>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Tel.(310)749-0577</p>	<p>샤롯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0900 Fax.(704)529-0998</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0981 Fax.(206)524-1746</p>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9425 Fax.(949)857-9472</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p> <p>3960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p> <p>Tel. (213)215-8523 Fax.(213)977-1183</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p> <p>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0288 Fax.(215)542-9037</p>	<p>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p> <p>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Tel.(347)753-4551</p>	<p>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p> <p>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p> <p>Tel.(718)570-585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1490 Fax.(915)751-4365</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p> <p>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4447 Fax.(703)941-4448</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p> <p>168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p> <p>Tel. (714)524-8800 Fax.(562)690-8044</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7500 Fax.(804)560-7514</p>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310)530-8400</p>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1150 Fax.(718)672-1151</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4040 Fax.(718)358-7789</p>	<p>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p> <p>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Tel. (215)927-0630 Fax.(215)927-0643</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4738 Fax.(860)647-0565</p>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1859</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1103 Cell.(917)922-050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5252 Fax.(808)947-5151</p>